

익선동 한옥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구상

배은석

2013-PR-56

익선동 한옥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구상

연구진

연구책임	배은석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장
연구원	박진선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연구원
	심보금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연구원
	이지현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신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재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범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익선동 한옥지역은 북촌과 창덕궁, 종묘와 인접하여 있으며 인사동, 낙원동과도 인접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한옥이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지역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와가 내려앉은 채 방치되어 있거나 오랜 시간 비워둔 집도 있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재생운동이자 새로운 박물관의 흐름인 에코뮤지엄의 이상을 도시한옥 지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산업화의 메커니즘 속에서 소멸된 도시 한옥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를 발현하여, 도시의 빈민지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 이에 따라 한옥을 보존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역사문화형 에코뮤지엄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익선동 주민들의 생업이자 삶의 터전인 도시 한옥을 배경으로, 한옥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공동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전통적 박물관과 다른 새로운 박물관의 형태이면서 지역문화운동인 에코뮤지엄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의 도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선행 연구 분석 및 문헌 조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콘텐츠적 활용론의 견지에서 도시 한옥지구를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형 에코뮤지엄을 제안하고자 한다.

1.2.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한옥지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문화자원인 창덕궁, 종묘, 운현궁, 한국미술박물관, 덕박물관, 춘원당한방박물관, 낙원악기상가, 묘동과 봉익동 귀금속 상가도 조사하였다.
- 내용적 범위 : 익선동 한옥마을의 한옥과 상가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주민 인터뷰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주민 의식을 조사하였다.

1 2 2 **주요 연구과제**

- 에코뮤지엄의 개념
-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
- 에코뮤지엄의 구조
- 세 가지 구성 요소와 구조
- 중핵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의 구조
- 익선동 한옥촌과 주민의 삶
- 익선동 한옥촌
- 익선동과 한옥촌의 현황
- 익선동 재개발의 문제
-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을 위한 제안 : 익선동 166번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한옥지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주변의 문화자원인 창덕궁, 종묘, 운현궁, 한국미술박물관, 떡박물관, 춘원당한방박물관, 낙원악기상가, 묘동과 봉익동 귀금속 상가 등과 연계하는 에코뮤지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2 **정책건의**

첫째,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 전(展)’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1 둘째, 익선동 한옥 가운데 유서 깊은 한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 문화재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2 2 셋째,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의 시현을 위한 주민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차례

I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0
3	연구 방법	11
II	에코뮤지엄의 이해	14
1	에코뮤지엄의 개념	14
2	에코뮤지엄의 구조	16
III	익선동 한옥촌과 주민의 삶	20
1	익선동 한옥촌	20
2	익선동 한옥촌의 현황	25
3	익선동 재개발의 문제	51
IV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을 위한 제안	56
1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의 구상	56
2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의 프로그램 개발	78
V	결론	82
	참고문헌	86
	Abstract	90

표차례

표 3-1	익선동 한옥촌의 상점 현황	29
표 3-2	익선지구 재개발 건축계획(안)	52

그림차례

그림 2-1	전통적 박물관 개념도(르네 리바르, 2011)	15
그림 2-2	에코뮤지엄의 개념도(르네 리바르, 2011)	16
그림 2-3	에코뮤지엄의 개념(오하라 가즈오키, 1996)	17
그림 2-4	에코뮤지엄의 구조도(최재희, 2002)	18
그림 3-1	오진암의 옛 모습	22
그림 3-2	철거 중인 오진암	22
그림 3-3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23
그림 3-4	익선동 한옥촌과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23
그림 3-5	익선동 한옥촌 전경	25
그림 3-6	익선동 한옥 내부	26
그림 3-7	익선동 한옥 골목길	26
그림 3-8	지붕 끝에 푸른색 함석 창을 달아 빗물 배수구를 보유한 한옥	27
그림 3-9	다양한 한옥 외벽	27
그림 3-10	한옥의 나무 대문과 장식	28
그림 3-11	원형을 간직한 한옥 창문	28
그림 3-12	개조한 한옥 창문	29
그림 3-13	칼국수집의 점심시간 풍경	32
그림 3-14	익선동 피맛골의 저녁 풍경	32
그림 3-15	가내수공업 한복집	33
그림 3-16	무대복을 취급하는 익선동의 한복집 내부	33
그림 3-17	오디너리 랩의 외부 모습과 익선동 지도	34
그림 3-18	카페 뜰안의 외부 전경과 내부 모습	34
그림 3-19	국내외 잡지에 소개된 카페 뜰안	35
그림 3-20	영화 카페 서울 포스터	36
그림 3-21	카페 서울 촬영 흔적과 팬들의 사진	36
그림 3-22	동아일보 1995년 10월 30일 기사	49
그림 3-23	국악사	50
그림 3-24	국악로	50
그림 3-25	낙원악기상가	50
그림 3-26	익선지구 재개발 위치도(제공 : 종로구)	51

그림 3-27	익선지구 재개발 조감도(제공 : 종로구)	51
그림 3-28	익선구역지정해제 사무실	53
그림 4-1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 구상	56
그림 4-2	중핵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을 축으로 한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 구조도	57
그림 4-3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 지도	58
그림 4-4	초목도 명인하는 이천만중의 호곡성	59
그림 4-5	종묘 제례의 모습	62
그림 4-6	정전	63
그림 4-7	영녕전	63
그림 4-8	난을 치는 대원군의 모습 재현	65
그림 4-9	한국미술박물관 전경	68
그림 4-10	시절음식과 시절떡	69
그림 4-11	부엌	69
그림 4-12	통과의례 상차림 (개성혼례)	70
그림 4-13	특별전시(아름다운 한국의 떡살)	70
그림 4-14	우리 할머니의 부엌살림 이야기展	70
그림 4-15	어린이와 함께하는 떡과 차 이야기展	70
그림 4-16	어린이 대상 떡만들기 체험학습	70
그림 4-17	춘원당한방박물관 전경	71
그림 4-18	묘동과 봉익동 귀금속 상가	73
그림 4-19	낙원악기상가	74
그림 4-20	서울 아트 시네마 외관과 안내표지 및 브로슈어	76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서울의 한옥촌 가운데 익선동 한옥지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다. 근거리에 있는 북촌 한옥지구가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으로 익선동 한옥지구는 보존과 개발에서 제외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 익선동 한옥지역은 북촌과 창덕궁, 종묘와 인접하여 있으며 인사동, 낙원동과도 인접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한옥이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지역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와가 내려앉은 채 방치되어 있거나 오랜 시간 비워둔 집도 있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간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하여 익선동 한옥지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형 에코뮤지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에코뮤지엄은 생태를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박물관을 의미하는 뮤지엄(museum)이 합쳐져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하고 자연·생태와 산업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모두 아울러서 특정 유산지역을 뮤지엄의 범주로 지정하고 지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되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프랑스에서 1970년대 시작된 지역재생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 지역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특히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결합하여 일본 전역에 6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사례가 없다.

2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재생운동이자 새로운 박물관의 흐름인 에코뮤지엄의 이상을 도시한옥지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박물관의 관심이 과거 인간 생활의 증거물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 방향을 자신이 속한 과거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미래로 향하게 하는 에코뮤지엄의 철학을 익선동 한옥지구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둘째, 산업화의 메커니즘 속에서 소멸된 도시 한옥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를 발현하여, 도시의 빈민지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문화콘텐츠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융복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의 산물이다. 이는 산업화, 정보화를 지나 다양한 영역과 매체가 결합하는 융복합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선

에서 되돌아보아 상실된 가치들을 발견하고 결합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한옥을 보존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역사문화형 에코뮤지엄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익선동 주민들의 생업이자 삶의 터전인 도시 한옥을 배경으로 한옥문화콘텐츠를 주제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공동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옥문화 유산을 비롯한 지역자원을 배경으로 주민이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인 위치에 설 때 진정한 도시공동체문화가 실현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전통적 박물관과 다른 새로운 박물관의 형태이면서 지역문화 운동인 에코뮤지엄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의 도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선행 연구 분석 및 문헌 조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콘텐츠적 활용론의 견지에서 도시 한옥지구를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형 에코뮤지엄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 테마에 따른 에코뮤지엄의 유형은 역사문화형, 농촌형, 산업유산형, 자연환경형, 테마파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역사문화형 에코뮤지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익선동 한옥지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II 에코뮤지엄의 이해

1 에코뮤지엄의 개념

2 에코뮤지엄의 구조

II 에코뮤지엄의 이해

1 에코뮤지엄의 개념

에코뮤지엄은 지역에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다양성과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처음 발명하고 이를 프랑스 현실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박물관학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는 에코뮤지엄의 정의를 세 번에 걸쳐 수정하였는데 이를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라고 한다. 그 세 번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 (1980년)

- 에코뮤지엄은 행정당국과 주민이 같이 구상하고 만들어 활동하는 수단이다. 행정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편의를 도모하고 재원을 제공한다. 주민은 각자의 흥미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과 대처능력을 제공한다.
-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주민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거기에서 주민은 자신들이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지역을 세대의 연속성이나 비연속성을 통해 이전 세대 주민의 설명에 이어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에코뮤지엄은 이처럼 주민이 자신들을 좀 더 알리기 위해 자신의 일과 행동, 그리고 내면성에 자부심을 갖고 방문자에게 내미는 거울이다.
- 에코뮤지엄은 사람과 자연의 표현이다. 이때 사람은 자연적 생태의 일부로 해석되고, 자연은 전통적 사회와 산업사회가 자신들의 이미지에 자연을 맞추도록 하는 그 원초상태로 해석된다.
- 에코뮤지엄은 시간의 표현이다. 즉 사람이 출현한 시대 바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이 살았던 선사시대·역사시대를 통해 확대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대에 이른다. 미래에도 에코뮤지엄은 결정기관의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정보전달과 비평적 분석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 에코뮤지엄은 공간의 해석이다. 여기에서 그곳은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산책하고 싶게 만드는 특권적 공간이다.
- 에코뮤지엄은 보존기관이다. 이곳은 주민의 자연유산·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한다.
- 에코뮤지엄은 연구소다. 이 기관은 외부 연구기관과도 협력하여 주민과 그 환경계의 역사적·동시대적 연구에 공헌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 에코뮤지엄은 학교다. 그곳은 주민을 연구·보존 활동에 참가시키거나, 주민 스스로 미래에

- 관한 여러 문제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이러한 연구소, 보존기관, 학교는 공통 원리에서 착상되었다. 그 기관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문화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기관들은 어떤 주민층에서 나온 표명이든 간에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렇게 다양화되기까지 자료는 표본마다 달라진다. 기관들은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해 가야 한다.¹
 - 결론적으로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는 에코뮤지엄이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보존기관이자 연구소이며,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양성을 수용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12 에코뮤지엄에 대한 르네 리바르의 정의

르네 리바르(René Rivard)는 에코뮤지엄과 전통박물관에 대한 비교 그림을 통해 에코뮤지엄을 정의하고 있다.² 그림 2-1의 전통박물관은 건물과 소장품, 전문가, 특정한 기술로 구성되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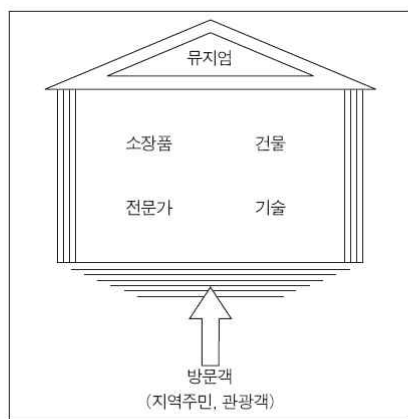


그림 2-1 전통적 박물관 개념도(르네 리바르, 2011)

이는 전통적 박물관이 박물관 건물이라는 장(場)에서 관장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인 학예사, 교육연구가, 전시 디자이너, 보존전문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관람객은 단지 방문자로 박물관을 찾는다. 반면 신박물관학의 개념인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주민을 주인으로 그들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

¹ 오히라 가즈오키, 2008,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김현정 옮김, 아르케, 24~25쪽 참조

² Peter Davis, 2011, Ecomuseums A SENCE OF PLACE, Continuum, 82-83쪽 참조

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지역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축적시켜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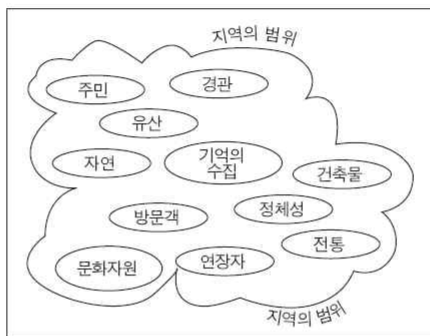


그림 2-2 에코뮤지엄의 개념도(르네 리바르, 2011)

그림 2-2의 에코뮤지엄은 지역,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사이트, 경관, 문화적 당위성, 거류민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익선동 한옥지구에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기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에코뮤지엄의 구조

2.1 세 가지 구성요소와 구조

에코뮤지엄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지역’(territory)을 중요한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점이다. 그 위에 지역 유산의 보존(Heritage), 주민의 참여(Participation), 박물관 활동(Museum)의 세 가지 요소가 이상적인 구조로 상호작용할 때 에코뮤지엄이 유지되는 것이다(오하라 가즈오키, 1996). 지역유산의 현지보존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산업유산, 기억의 수집 등을 지역의 범주 안에서 보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Participation)는 주민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능동적으로 에코뮤지엄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활동(Museum)은 발굴, 전시, 보존, 조사, 연구 등의 일련의 활동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이 잘 맞고, 밀접한 네트워크가 짜여 있는 것이 에코뮤지엄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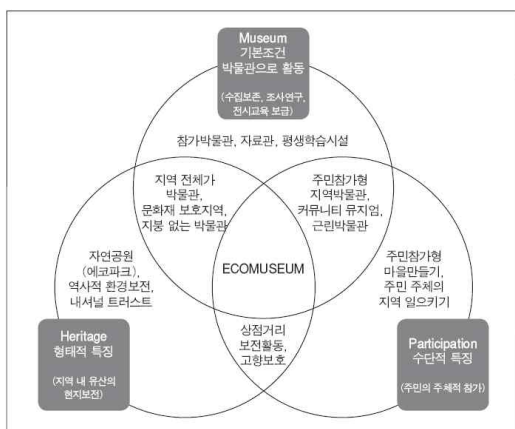


그림 2-3 에코뮤지엄의 개념(오하라 가즈오키, 1996)

이를 바탕으로 그림 2-3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성립된다. 익선동 한옥지구에 마을의 오래된 골목과 주거지를 보존하려는 주민 운동이 있다면 오래된 골목과 주거지의 보존이 H(유산보존)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동이 P(주민참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마을에 박물관학(museology)의 활동이 더해지면 바로 에코뮤지엄이 될 수 있다. 또한 P(주민참여)와 M(박물관활동)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박물관 활동을 적극 시행하여 주민참가에 의한 조사, 전시 등을 시도하고 있는 박물관의 실제 사례가 있어, 이 활동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 등의 현존보존활동과 결합하게 된다면 에코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사문화형 에코뮤지엄을 구상하고자 한다.

2.2 에코뮤지엄의 중핵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의 구조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는데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네트워크모형의 구조도를 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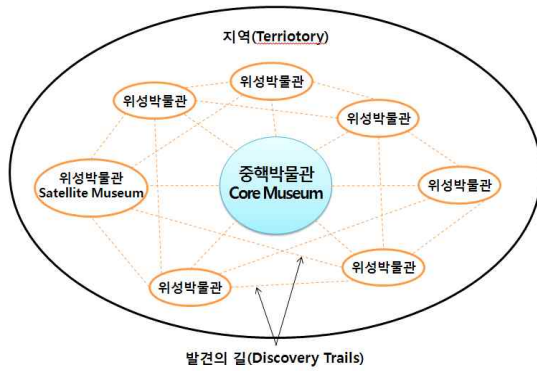


그림 2-4 에코뮤지엄의 구조도(최재희, 2002)

에코뮤지엄의 가장 상징적이고 주변의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자원인 중핵박물관, 나머지 지역자원인 위성박물관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역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중핵과 위성으로 이어지는 각 사이트를 연결하는 길을 발견의 길로 보았다.

III 익선동 한옥촌과 주민의 삶

- 1 익선동 한옥촌
- 2 익선동 한옥촌의 현황
- 3 익선동 재개발의 문제

III 익선동 한옥촌과 주민의 삶

1 익선동 한옥촌

1 1 익선동과 한옥촌의 역사

조선 전기 한성부 중부 정선방 관할 지역이었던 익선동 일대에 19세기 중엽 철종은 즉위 직후 자신이 태어난 곳에 큰 가옥을 짓고, 그곳에 아버지 신위를 모시고 친형을 살게 하였다. 그 집은 누동궁이라고 불리었는데, 누동궁은 대문 앞 익랑(翼廊)³이 유독 크고 돌보여 사람들은 누동궁과 그 주변을 익랑골 또는 익동이라 불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익선동 일대는 돈령동, 한동, 익동, 누동, 궁동 등으로 불리게 되었고, 일제 강점기인 1914년 4월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돈령동, 궁동, 익동, 한동 등의 각 일부는 익선동으로 통합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출장소 제도 신설로 경성부 북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익선정이 되었으며, 1943년 4월 구제(區制) 실시로 종로구 익선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익선동이 되었다.

익선동은 돈화문로 주변지역으로, 종묘, 창덕궁, 운현궁 탐골공원 등 중요한 문화재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후기, 이곳에 한옥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익선동은 이러한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 중심지구의 정치적, 행정적 보완기능을 담당하여, 사대부들의 주거와 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까지 기상관측을 위한 ‘측후소’가 운영되어 천문, 지리, 역수 등의 업무를 맡기도 했다.

1 1 1 도시형 한옥의 성립과 정세권

1910년부터는 이 지역에 한옥 형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가 찾아왔다. 일제강점기에 주택개발업자 정세권은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였고, 이에 익선동에 필지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서민형 주택단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서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맞는 주택지를 고민하던 정세권은 당시 ‘문화주택’이라고 불리던 서구식 주택을 배제하고 ‘도시형 한옥’을 고안하게 되었다. 도시형 한옥은 유리, 함석, 타일 등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평면을 단순, 표준화시킨 것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배려하여 고안되었다. 한옥주거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20~1930년대에는 익선동의 전체 한옥 110채 중 85채가 건

3 날개처럼 옆으로 뻗은 채를 의미한다.

설되었다. 이때 고무적인 것은 한옥의 건축 비율이 높았다는 점인데, 세워진 건물 중 약 92%가 한옥이었다.⁴

익선동의 한옥은 50년대를 지나며 정착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50년대에 한국전쟁 피해는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일반 주거지인 익선동은 피해가 미미했다. 따라서 익선동 한옥의 보존 상태는 매우 우수했는데, 여기에 1953년 “오진암”이 개장하며 요정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60~70년대를 거치며 개발 압력이 거세지면서 익선동 166번지 주변지역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번지 한옥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무수한 재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익선동의 역사에서 알아볼 수 있듯, 익선동 한옥의 특징은 ‘도시형 한옥’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한옥의 모습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지붕은 기와를, 벽면은 벽돌을 이용하였고, 지붕 끝에 푸른색 함석창을 달아 빗물 배수구를 만들고, 창문과 거실문에 유리를 달았으며 마당 가운데는 정원을 두어 실용과 심미적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는 주택의 유형이다.

정세권을 비롯한 건축업자들이 이처럼 특이한 한옥의 양식을 익선동에 가져온 이유는 『경성편람』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정세권은 “외관도 미술적인 동시에 사용상으로도 견확하고 건축비, 유지비와 생활비 등의 절약에 유의함이 본사의 사명인가 합니다.”고 하며 서민의 생활에 맞는 경제적인 건축에 뜻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전통 한옥은 도시형 한옥에 비해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3배 정도 더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실용적 건축을 추구했던 정세권은 불가피하게 여기에 개량을 가하게 되었다.

12 익선동에 꽃 피운 요정 문화, 그리고 오진암

한옥 건축물의 특이성과 함께 특징을 이루는 것은 ‘요정문화’이다. ‘요정’이란 객실에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는 음식점을 뜻하는데, 일반대중음식점과 다르게 유흥업 종사자가 손님 옆에 앉아 술시중을 드는 장소다. 익선동의 오진암은 서울시 음식점 1호 업소이자 근대 최초의 요정이다. 70~80년대 요정 정치의 산실 중 한 곳이었던 오진암은 원래 조선시대 화가 이병직(李秉直)이 살았던 집이었다. 1953년 한정식집으로 개조돼 서울 음식점 1호로 등록됐다. ‘오진암(梧珍庵)’이란 이름은 마당에 오동나무가 있다고 해서 붙었다. 오진암은 성북구 성북동의 대원각, 삼청각과 함께 3대 요정을 이루며 요정문화의 성행을 이끌었다. 요정은 박정희 정부시절 가장 성행했는데, 당시의 요정은 은밀한 요정정치의 근거지를 이루기도 했다. 실제로 오진암에서 1972년 박정희 정부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제2부수상이 만나 7.4 공동성명을 논의한 바 있다.

⁴ 강성원·강명수·정봉거·김기호, 2006, 「역사환경으로서의 도시조직 변화연구 : 종로구 익선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발표자료, 한국도시설계학회, 6-9쪽.

찬란한 시절을 보낸 요정은 90년대에 들어서며 ‘기생 관광’ 조장을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사정바람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정치인이나 기관장, 사회유명 인사들의 요정으로 가는 발길이 끊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요정은 일반 한정식 혹은 다른 업종으로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고, 요정문화 역시 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익선동의 오진암 또한 2010년까지 한정식집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 2010년 폐업한 뒤 매각되었다.



그림 3-1 오진암의 옛 모습
자료 : 연합뉴스



그림 3-2 철거 중인 오진암
자료 : 연합뉴스

오진암의 소유주인 조모씨는 고령 등의 이유로 2010년 이곳을 부동산 개발업체 이솔티에 팔았다. 이솔티와 종로구청은 오진암을 구청 소유의 땅인 부암동으로 이전해 전통문화시설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전·복원 비용 10억원은 이솔티에서 호텔 건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솔티는 땅과 호텔 건물을 생보부동산신탁에 넘겼다. 이비스(ibis) 엠베서더가 이 호텔을 위탁 경영하고 있다. 호텔은 지상 10층, 지하 2층에 363개 객실 규모다.⁵

오진암부지에 건립된 비즈니스호텔 이비스 엠베서더는 2013년 10월 25일 개관했다. 비즈니스호텔이란 특급호텔보다 가격이 낮으면서 인터넷·팩스 등의 시설이 잘돼 있어 출장자들에게 인기 있는 호텔이다.

익선동 주민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고급 요정 오진암이 헐리고 그 자리에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상징적 건물이 철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다른 하나는 어차피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이질적인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섰으니 인사동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⁵ 요정 정치 산실이었던 오진암 부지에 비즈니스 호텔 '이비스 엠베서더' 문 열어, 조선비즈, 2013.10.2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4/2013102404576.html



그림 3-3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그림 3-4 익선동 한옥촌과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오진암은 헐렸지만 아직 요정문화의 흔적들이 익선동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오진암 근처의 한복집들 중 일부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요정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옷을 짓던 한복집들은 전통의상과 다른 모습의 한복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요정 근무자들의 복식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13

서민들의 피난처 피맛길

피맛길은 하급관리나 백성들이 말을 탄 고관의 행차를 피하기 위해 [피마避馬]다니던 대로가 아닌 이면의 골목길이다. 익선동과 돈의동의 경계에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피맛길이 유지되고 있다. 익선동의 피맛길에는 길을 따라 저렴한 고깃집, 백반집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종로를 따라 있던 피맛길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헐리고 그 자리에 빌딩이 들어섰다. 과거 피맛길에 있던 음식점들은 새로 입주한 식당들과 별반 다른 모습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종로의 피맛길을 잃었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역사문화유산이라고 인식했다면 그렇게 쉽게 헐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익선동에 피맛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허기를 달래던 곳이어서 그런지 이곳의 음식 값은 아직도 저렴하다.

또한 익선동의 집값은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편인데, 이에 따라 타지에서 올라온 서민들이 값싸게 집을 구하게 되었다. 또한 가난한 지식인들이 다수 익선동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렴한 식당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한 요정이 성행할 때에는 운전기사들이 찾기도 하며 식당의 단골손님이 되었다.

이처럼 외적, 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과 함께 익선동에선 다양한 사건이 전개되기도 했다. 우선 익선동을 주택지로 바꾼 장본인인 정세권은 '조선물산장려회'를 후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압적인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그 지배 방법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력으로 민중을 진압하여 통치하는 대신,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고 일본식 교육을 주입하며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는 통치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자본과 기업은 국내로 급속하게 침투하였고, 일제 자본에 의해 경제적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조선물산장려회였던 것이다. 조선물산장려회는 물산장려운동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적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이를 주관했던 조선물산장려회관이 익선동에 자리 잡은 바 있다. 익선동을 중심으로 일제의 문화통치에 반발하는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조선물산장려회관은 1931년 9월 낙원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익선동에서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이후의 익선동과 관련된 사건들은 요정정치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김두한이 정치인 시절 오진암을 단골로 이용했다고 한다. 자주 이용했던 만큼 오진암과 관련된 해프닝도 있었는데, 1966년 9월22일 국회에 분노를 투척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삼성의 사카린 밀수를 추궁하기 위한 국회 소집 전날 김두한은 오진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비서에게 분노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분노를 투척한 희대의 사건을 벌이게 되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오진암에서 계획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오진암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 중 기억할만한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합의였다.⁶ 70년대에 들어 전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남북의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11월부터 72년 3월까지 남북한은 한국적십자사의 정홍진과 북한적십자사의 김덕현을 실무자로 하여 판문점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의 성과를 바탕으로 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문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의 서울방문이 실현되었는데, 이때 이후락이 서울을 방문한 박성철을 데리고 간 곳이 오진암이었다. 그곳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사전 논의를 마치고 이를 대중에게 발표하게 되었다.

7월 4일 마침내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첫째,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6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하여야 한다가 그것이다.

비록 이 성명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 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뤄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점으로 인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통일 노선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익선동 한옥촌의 현황

2.1 익선동의 한옥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익선동의 모습은 1920년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주택 개발산업에 뛰어들었던 정세권은 건양사라는 주택회사를 만들었고, 가회동 일대 개발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후, 두 번째 개발지로 익선동을 택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회동 일대가 비교적 대지가 커서 주로 서울에 진출한 지방출신 지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주택들이 들어온 것과 달리 익선동은 평지에 15평 안팎의 서민용 주택이 주로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초가집과 같은 전근대적 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은 익선동 개량 한옥 개발과 보급 이후, 청결하고 편리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다.



그림 3-5 익선동 한옥촌 전경

익선동 대부분의 한옥은 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있고 가운데 마당이 있는 격자 형태의 한옥이며 전통 한옥이 아니라 개량된 근대식 한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도시한옥으로 계획되면

서 평수는 15평대에서 30평대, 50평대에 이르는 규모까지 설계되었다. 현재 익선동 한옥에는 노인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골목은 주차는커녕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정도이다. 간혹 집 앞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어 집주인의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익선동 한옥마을은 좁은 골목이 특징이다. 한두 사람이 겨우 걸어갈 수 있을 법한 골목에 한옥들이 서로 마주본 채로 들어서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대문과 기와가 있는 한옥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규모로 한 번에 건설된 한옥지구이기 때문에 대문의 모양이나 가옥의 전반적인 형태는 대부분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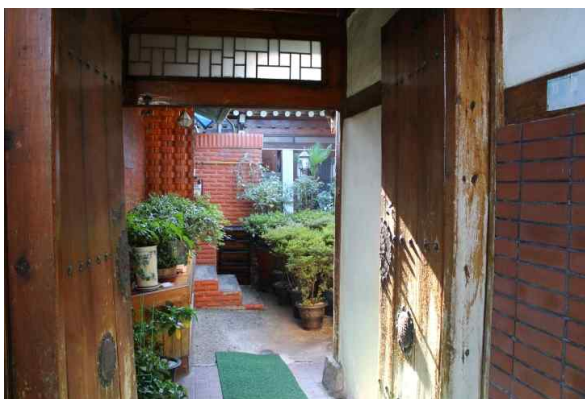


그림 3-6 익선동 한옥 내부

익선동의 역사에서 알아볼 수 있듯, 익선동 한옥의 특징은 ‘도시형 한옥’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한옥의 모습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지붕은 기와를, 벽면은 벽돌을 이용하였고, 대청마루에는 유리 낀 문을 달아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였으며, 마당에는 작지만 정원을 두고, 지붕 끝에 푸른색 함석 찡을 달아 빗물 배수구를 만든 것이 이전 전통 한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7 익선동 한옥 골목길



그림 3-8 지붕 끝에 푸른색 함석 채를 달아 빗물 배수구를 보유한 한옥

한옥의 벽체는 벽돌이나 타일을 덧댄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돌편을 붙인 한옥도 볼 수 있다. 벽돌의 색상은 붉은색, 갈색, 자주색, 황토색, 노란색, 하얀색, 그린색, 검붉은색, 회색 등 매우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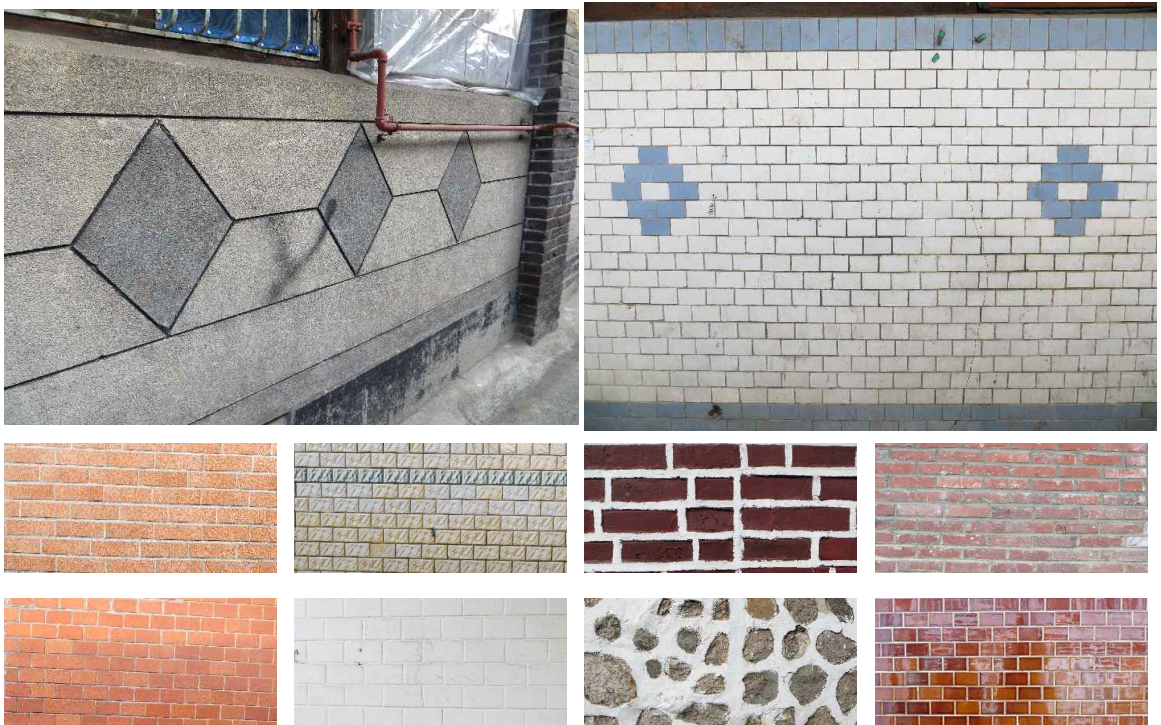


그림 3-9 다양한 한옥 외벽

한옥의 대문은 나무대문이 대부분이고 가운데 문고리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집집마다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그림 3-10 한옥의 나무 대문과 장식



그림 3-11 원형을 간직한 한옥 창문

창문은 벽의 3분의 1지점 정도에 작게 있는데 방범 창살이 부착되어 있는 집이 많으며 그 문양 또한 다양하다. 창틀의 원형을 간직한 집들이 보이는데 나무틀에 유리를 끼워놓은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가옥이 다수 발견된다. 그에 반하여 새로 창틀을 바꿔 끼우고 방범 창살도 오늘날 사용하는 강한 재질의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집들도 있다.



그림 3-12 개조한 한옥 창문

2.2 익선동의 상점

익선동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다양한 상점들이 있다. 오래된 구멍가게나 환전소, 세탁소, 식당과 같은 상점들은 익선동만의 옛 정취를 잘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익선동에는 예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상점들과 더불어 최근 들어 새로 들어오고 있는 공방, 작업실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지하철 1,3,5호선이 관통하는 뛰어난 접근성과 익선동만의 전통적인 특색 등의 이유로 지역의 가능성을 알아본 몇몇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공방과 작업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표 3-1 익선동 한옥촌의 상점 현황

상점	개수	상점	개수
식당 	46	무형문화재 판소리 연구소 	1
한복집 	10	대한민국 수채화 작가협회 	1
모텔 	8	한국한글 문인협회 	1

표 계속 익선동 한옥촌의 상점 현황

상점	개수	상점	개수
공방	7	(사)도시행정발전연구소	1
점집	4	(사)전통문화 사랑 모임	1
옷가게	4	익선구역지정해제사무실	1
환전소	4	석유집	1
카페	3	떡집	1
게스트 하우스	2	디자이너 스튜디오	1
미장원	2	고시텔	1
구멍가게	2	원룸한옥	1
세무사	2	금속상	1

표 계속 익선동 한옥촌의 상점 현황

상점		개수	상점		개수
세탁소		2	피아노 조율상		1
건강원		2	꽃집		1
트로피제작사		2	종합설비사		1
주차장		2	전자대리점		1
편의점		1	부동산		1
당구장		1	국악사		1
총 계			122개소		

익선동 한옥촌에서 가장 많은 상점은 식당이다. 피맛길을 따라서 식당이 나란히 형성되어 있고 한옥촌 안에도 작은 골목을 따라 식당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곳에 자리한 식당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좋아서 주변 회사원들도 많이 찾는다. 이 가운데 단연 인기가 있는 집은 칼국수집인데 점심시간이면 인근 건물의 회사원들이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림 3-13 칼국수집의 점심시간 풍경

또한 피맛길은 저녁에 더욱 활기를 띠는데 돈의동 포장마차까지 이어지는 긴 구간은 저렴한 가격에 식사와 반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그림 3-14 익선동 피맛길의 저녁 풍경

다음으로 많은 상점은 한복집이다. ‘오진암’ 등 요정의 영향으로 현재도 10여 곳의 한복집이 영업 중이다. 간판을 걸고 한복집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림 3-15 가내수공업 한복집

또한 국악기상과 한복집을 겸하는 곳도 있는데 이들이 다루는 한복은 일반 한복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공연 예술을 위한 무대복이나 과거 꽃피웠던 요정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위한 한복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과 색이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림 3-16 무대복을 취급하는 익선동의 한복집 내부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모텔인데, 이들은 한옥이 아니라 양옥의 형태로 2층 또는 3층 건물이 대부분이다.

익선동의 가장 큰 이슈는 최근 이곳에 인테리어 공방이나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공방, 공예 공방, 섬유 공방, 디자이너 스튜디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옥에 매료되어 입주하고 있다. 삼일로에서 익선동 한옥촌으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오디너리 랩은 서울의 오래된 골목과 가옥이 밀집해 있는 곳을 찾아 지도를 만든다. 이들이 만든 지도 ‘아마추어 서울’은 옛 서울의 향수가 남아 있는 장소를 선정해 이야기가 담긴 동네 지도를 만든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동갑내기 김지은, 유혜인 두 디자이너가 익선동 한옥촌의 공방에서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09년 종로구 재동 계동 원서동 일대

를 담은 첫 지도가 나왔다. 2012년에 두 번째 지도인 종로구 익선동 지도에 이어 2013년 종로구 서쪽 홍파동 행촌동 일대 지도와 163, 301번 버스 노선을 타고 여행하는 지도 등 총 4개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들의 지도는 새로운 서울 골목 투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외국인들이 서울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들의 작업실은 한 칸짜리 작은 공간이다. 작업실 외부에는 그들이 만든 지도가 유리문 앞에 붙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이 지도 만드는 곳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림 3-17 오디너리 랩의 외부 모습과 익선동 지도

‘오진암’의 기생이나 손님들이 자주 애용하던 점집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 점집은 4곳이 남아 있었다. 또한 양품점 형태의 옷가게가 4곳이 있으며, 환전소도 4곳이 있다. 카페는 현재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이 2곳이고, 신축 공사를 하여 개장을 앞둔 곳이 1곳이다. 그 가운데 1곳이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종로 세무서에서 종로 3가역 방향으로 뻗은 길을 따라 가면 마주보이는 한옥이 있는데 이곳이 카페 ‘뜰안’이다.



그림 3-18 카페 뜰안의 외부 전경과 내부 모습

이곳은 나름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곳으로 단아한 한옥 외관을 갖추고 아기자기하게 꾸민 내부 인테리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3-19 국내외 잡지에 소개된 카페 플안

이곳은 그동안 이곳이 소개된 내용이 담겨있는 잡지나 책자를 모아 두어 방문객이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이 명소가 된 데는 사연이 있는데 2010년 일본인 감독 타케 마사 하루(武正晴)가 만들고 한일 합작 투자한 영화 ‘카페 서울’ 때문이었다. 철거 위기에 놓인 전통떡집 모란당을 지키기 위해 일본인 프리랜서 르포라이터 ‘준(사이토 타쿠미)’과 말쑥꾸러기 둘째 아들 ‘상혁(김정훈)’이 의기투합하게 되고, 이들이 모란당을 지키는 과정에서 가족애와 전통 떡의 맛을 찾는다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다. 이 영화는 한류를 넘어 인류 보편의 정서를 오래된 한옥골목과 전통 음식 떡에서 찾고 있다. 그러한 의도는 영화 제작 노트에 잘 나타나 있다.

.....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점점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한류 열풍을 타고 보다 다양하고 한국적인 소재를 담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음식 하면 김치, 불고기가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 막걸리나 떡볶이 같이 매우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음식들로까지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모찌’라는 전통 음식과 정서적 교집합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한국의 ‘떡’은 영화 <카페서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인기 드라마나 배우를 넘어서 음식을 통한 좀 더 친밀한 한류의 진화는 영화 <카페서울>을 통해 더욱 달아오를 것이다.

.....

영화 <카페서울>은,

한국의 전통적인 매력에 남아 있는 인사동 뒷골목을 주 무대로 한다. 제작 당시부터 한국의 매력을 그대로 전하며 더욱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데 주안 했다. 한국 을 로케로 진행된 영화 <카페서울>은 이미 십여 작품 이상 한국에서 촬영 경험이 있었던 타케 마사 하루 감독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감독 이외에 모든 스태프를 한국 현지 사정에 익숙한 한국 스태프들로 구성한 것은 일본 영화 제작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 영화 제작 노트 중 -

영화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익선동 한옥과 그 골목 및 전통 떡이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한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즈음에 한일 양국의 공통된 정서를 찾으려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카페 서울의 흔적은 지금도 틀안에 남아 있다.



그림 3-20 영화 카페 서울 포스터



그림 3-21 카페 서울 촬영 흔적과 팬들의 사진



그림 3-20은 영화 카페 서울의 포스터이고, 영화 촬영지였던 틀안에 남아 있는 영화 속 떡집 ‘모란당’ 간판이다. 그림 3-21은 일본 팬들과 주인공 역할을 맡은 김정훈을 비롯한 배우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배치된 카페 내부 모습이다.

또한 게스트 하우스가 2곳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한옥을 그대로 살려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신축 건물에 현대적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직도 집계를 불에 달구어 고대를 하는 미장원 2곳과 도대체 걸릴 것 같지 않은 오래된 전화기를 보유한 슈퍼와 종로 세무서 앞의 신축 건물에 자리한 세무사사무실,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소소한 상가들로는 세탁소, 떡집, 편의점, 건강원, 부동산, 석유집, 당구장, 고시원, 주차장, 국악사, 꽃집, 떡집, 전자대리점, 종합설비사, 피아노조율사 등이 익선동 한옥마을에 있다.

그 외에 중요무형문화재 5호인 판소리 연구소, 대한민국 수채화작가협회, 한국한울문인협회, (사)도시행정발전연구소, (사)전통문화 사랑 모임, 익선구역지정해제사무실 등이 있다. 특히 익선구역지정해제사무실은 그동안 익선지구 재개발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들의 모임 사무실이다.

① 익선동 주민 인터뷰

당초 익선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이곳 주민들은 설문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점에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식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익선동 한옥촌에 위치한 전통 찻집인 'D'카페의 사장님을 인터뷰하였다.

◆'D'카페 사장님 인터뷰(2013년 9월 10일)

Q. 익선동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A. 익선동에 들어온 지는 5년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세가 비싼 인사동을 피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Q.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나요?

A. 네,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5년 전에는 정말 많이 더러웠는데 최근에 호텔이 들어서고 새로 작업실이 늘어나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Q. 익선동은 어떤 곳인가요? 익선동을 관광지로 만드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가장 오래된 한옥은 다 익선동에 있어요. 외국인이나 전문가들은 익선동의 골목을 좋아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고 깨끗한 모습 말고도 다양한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1,3,5호선이 모두 지나가는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은 곳이고요. 하지만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쪽방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노인들이고 관광지화가 되어 거리에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인사동처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상점이 들어서기보다는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 위주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지적하였듯이 재개발이나 관광단지가 되었을 경우 이곳의 주민들은 떠나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사동처럼 원형이 파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골목과 주민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할머니 인터뷰(2013년 9월 10일)

Q. 익선동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A. 거주한 지 60년이 되었다.

Q. 익선동은 어떤 동네인가요?

A. 대감동네이다. 가게 앞의 길은 800년 전 길이다. 아이들을 다 여기서 기르고 시집·장가까지 다 보냈다. 박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왔다.

Q. 관광객들이 한옥을 관람하러 찾아오는지요?

A.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앞의 요정은 장관들, 대통령도 찾아왔다.

Q. 이곳에서 할머니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옷가게를 크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것만 한다.

Q. 주변에 비해서는 개발이 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A. 익선동은 크기도 작고 건축회사에서 이익도 남지 않아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종묘 옆에 있어 5층 이상 개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Q. 익선동 주민들은 개발에 찬성하는지요?

A.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이 어디 있겠나, 아파트 하나 얻자고 개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Q. 이 일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A.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모두 많다.

또한 골목을 돌아 우연히 도시개발연구소의 김공박 박사님을 만나 뵈게 되어 한 시간가량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 (사)도시행정개발연구소 김공박 소장 인터뷰(2013년 9월 10일)

Q. 연구소인가요?

A.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사단법인입니다.

Q.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A. 기업 발전이나 여러 가지 지방 발전 등 전국 지역들을 돕습니다.

Q. 익선동에서 연구소를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A. 10년이 넘었습니다. 사단법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 회비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자금이 없고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Q. 10년 동안 익선동에 계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익선동에 창덕궁, 창경궁, 종묘, 대원군 윤현궁, 경복궁이 있고 인사동도 있고 지역적인 사정으로 볼 때 역사적인 곳입니다. 종로 3가 쪽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4차선 거리를 1차선으로 줄이고 보행 길을 넓혔습니다. 제2의 인사동을 꿈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익선동은 재개발 지역이 된 지 10년 가까이 되어 재개발 추진 주체들이 힘을 쓰고는 있지만 고궁과 종묘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받아 건폐율이 4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은 재개발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개발해도 땅만 빼앗기는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반대파가 재개발지역에서 해제하라고 주장하면서 재개발 추진세력과 반대 세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재빨리 해제시켜야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을 하던지 할 텐데, 지금 문제점은 익선동 건물들의 지붕들이 다 천막을 덮어놓고 집도 보수를 못하게 해서 골목 곳곳에 쾌쾌한 냄새도 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도 다니는 서울 중심의 종로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한옥보존, 지역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곳인데 재개발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한다고 해도 승산이 없는데 추진위원장 등 앞장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쓴 비용들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재개발 지역으로 설정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A. 한 10년 이상 되었다. 재개발을 시작할 때 젊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는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든지 추진되지 않고 끝나든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빌딩도 짓지 못하는데 손해 봐가면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비용문제 때문에 세월만 지나고 지역이 늙아가기만 하고 문제만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 종로3가의 중심가에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한 발도 못 떼고 역사적인 지역이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울 답사를 많이 하면서 서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서울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흥에 취해서 종로에서 왔다가 술만 먹고 유흥을 즐기고 갑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역사적

인 공간입니다. 그런 지역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차단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Q.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익선동에 많이 찾아와서 갤러리 등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A. 이 앞의 돼지갈비 골목은 밤에 사람이 많아 길을 못 지나다닐 지경이다. 이 윗 골목에는 꽃가게도 생기고,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생기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익선동은 건물 수리를 할 경우 건축법에 걸리기 때문에 수리도 할 수 없습니다.

Q. 여기 한옥들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A. 진짜 한옥(전통한옥)은 익선동에 없습니다. 한옥이라는 명칭은 쓰지만 새로운 한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한옥은 없습니다. 기와도 바꾸고 구조도 바뀌었고 나무기둥도 아니고 콘크리트 기둥을 사용하고 보기만 한옥일 뿐 전통 한옥이 아닙니다. 수복 후에 개량 한옥이 집중적으로 익선동에 지어졌고 50년, 60년이 흐르면서 집이 많이 낡게 되었습니다. 예전 이조시대 때부터 지어진 한옥은 없어졌습니다. 창덕궁 옆쪽은 내시들이 많이 살던 동네입니다. 내시도 모두 가족과 부인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Q. 재개발이 되면 주민들은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의향이 있으신가?

A. 재개발이 되면 주민들은 못 살고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재개발은 돈을 현시가대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평가대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돈을 받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자기 돈을 더 얹어서 새로 개발되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적은 돈을 받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개발이 모두 이 지경이지요. 재개발이라고 모두 황금덩어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Q. 익선동이 다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되고 서울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의견이 같습니다. 익선동의 역사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고 의미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설계를 맞추어 진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의 고서적이나 골동품을 팔던 인사동이 아닌 시장으로 변해버린 인사동을 대신해 익선동은 제2의 인사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Q. 인사동의 외국인관광객들이 익선동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A. 외국인관광객들은 구경하러 와서 골목길을 돌고 갑니다. 하지만 와서 미로라고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길을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서 골목에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Q. 익선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역사성인가요?

A. 그렇습니다.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문화의 창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 번 개발하면 끝인 곳을 잘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모두 걸치레 위주의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Q. 익선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A. 익선동 주변지역, 그리고 익선동의 찌그러진 집들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한쪽에는 역사의 상징인 궁들이 있지만 그 바로 옆의 찌그러진 집들 또한 그와 같은 문화재입니다. 이런 곳은 전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공박 소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지역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는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지역개발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재개발로 생길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였다.

익선동재개발지구는 2014년 1월 4일 재개발 승인 취소가 고시되었다. 그 후 김소장을 다시 찾아 인터뷰하였다.

김소장은 현재 면목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 연구소는 익선동에 자리 잡은 지 약 10년이 되었다. 1989년부터 원래 익선동의 한옥에서 거주하였지만 살던 한옥이 노후화되어 불가피하게 이주를 결정하였다. 당시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집의 보수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기둥이 하나 무너져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구청에서 건물을 허무는 조건으로 새로 건물 허가를 받아 짓게 되었다. 이후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골목이 너무 좁아 리어카로 사람들이 다 일일이 자재를 운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사)도시행정발전연구소 김공박 소장 인터뷰(2014년 1월 8일)

장소 : 종로구 익선동 158-5 사단법인 도시행정발전연구소

Q. 재개발에 대한 박사님의 설명 및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나라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질 좋은 환경, 즉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는 개발 이익이 가장 큰 이득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었을 때 대부분 소유자는 이를 생각해 재개발이 큰 황금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재개발에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조합 단계, 그다음 결산(관리처분)단계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후에 입주자 신청을 받아 결산을 받게 됩니다. 결산 단계는 현재 소유자가 갖고 있는 집의 가격과 앞으로 새로 건축할 비용, 지어질 집의 가격, 즉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을 비교하는데, 이때 현재 가격이 미래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유자는 돈을 더 내고 건물을 사야 합니다. 소유자들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돈을 한 푼도 안 내놓고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재개발도 그렇지만 본래 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토지는 재개발을 위해 감정 평가될 때 완전히 저평가됩니다. 이때 저평가되어 미래가격에 훨씬 못 미치게 되다 보니 이전의 거주민들은 거의 쫓겨나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재개발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익선동 재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들이 미래 가격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던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땅을 내놓고 이익을 취하려던 것인데 재개발 이후 비전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주체 측에서는 입발림으로 계속 재개발을 추진하려 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재개발 사무실 운영비와 월급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체 측이 익선동 재개발을 그만두게 된 것은 구청이랑 시에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주겠다고 하니까 재개발에서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재개발이 질질 끌어져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소유주들은 집도 제대로 못 고쳤습니다. 보수를 하거나 하면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재개발이 해제되어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익선동 한옥 보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내가 생각하기에 재개발을 위해 참여했던 교수와 학자들이 계속해서 제시했던 청사진은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한옥 보존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꿈입니다. 이곳은 한옥이 없습니다. 전부 벽돌로 보수된 한옥입니다. 현재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 한옥의 기왓장들은 천막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상업지역이어서 한옥이 보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을 어떻게 한옥 보존지역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옥을 보존하려면 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서

울시의 부채를 생각하면 익선동을 위한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옥지구를 만들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 익선동의 골목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자꾸 신천지 개발하듯이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지역이 5,60년 걸렸는데 역사적인 이 골목길을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 외국인들은 익선동의 이 골목을 너무 좋아합니다. 서울 도심지에서 이전의 옛날 골목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서울 장안에 이 좁은 골목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오래갈수록 사람들이 탐방하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도로로 만들어 바꾸어 버리고 그러면 옛날 자체가 다 없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재개발된 곳을 보면 옛날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옛날 흔적을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화문 주변에 한옥이 다닥다닥 얼마나 멋지게 붙어있었는지 아십니까? 통의동 일대에서부터 정말 많은 한옥이 있었는데 그게 다 새로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옛날 한양의 역사적인 자취를 맞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은 역사적 고찰도 없이, 역사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익선동의 한옥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시골도 없어지고, 서울 시내의 오래된 것들도 사라지는데 그러면 옛날 자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이러다 보면 후세대들에게 결국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가옥이나, 여운형 가옥, 이화장 같은 곳이 있어야 옛날의 어른들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Q. 익선동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처음에는 익선동 하면 지저분한 생각이 들었지요. 옛날 골목, 허름한 집들, 주위가 허름하다보니 분위기가 웅성웅성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생각해보니 향수가 느껴집니다. 서울에서 이런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곳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Q. 익선동에서 가장 좋은 것은?

A. 익선동의 대표적인 골목길 가운데, 가까이 있는 돈화문로를 중심으로 한 거리를 좋아합니다. 서울시가 돈화문로 주변을 매입하여 전시관으로 발전시킨 것 또한 마음에 듭니다. 옛날로 치면 이곳이 청와대 앞입니다. 왕들은 사실 경복궁보다 창덕궁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익선동 일대가 왕들이 가장 오래 행차하던 길인 셈입니다. 그곳에 옛날 자

체가 고즈넉이 남아있어 참 마음에 들고 귀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와룡동처럼 돈에 너무 치우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면 안 됩니다.

Q. 주변 지역과 익선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A. 주변 지역과 익선동의 연계는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동의 임대료가 비싸 자꾸 가게들이 이쪽으로 넘어 오는데, 이것 역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개발 종료가 공표되면 새롭게 지역을 수리해서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이어서 거주지역인 북촌에 비해 얼마든지 개발될 거 같은데, 걱정인 것은 골목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염려입니다. 골목길이 좁아 차도 못 다니고 답답하긴 한데, 그리고 화재에 대한 염려도 주민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편이고, 요즘 소방시설이 발전해서 좁은 골목길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Q. 주민들이 하는 모임이 있는가?

A. 없습니다. 재개발 당시 추진위원회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하는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 있는데 재개발 추진 당시 재개발 추진위원장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재개발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갤러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곳이 제2의 인사동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파괴된 인사동이 아니라 옛날의 인사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장은 익선동의 한옥과 골목길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익선동 한옥은 진정한 한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익선동 한옥이 도시형한옥으로 개량된 형태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과거 전통 한옥에 대한 향수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한옥에서 O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인을 인터뷰한 것이다.

◆ 한옥 게스트하우스 주인 인터뷰(2014년 1월 8일)

Q. 보통 어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A. 한국 손님들이 반 정도,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 프랑스 분들도 자주 찾아오신다. 서양 분들 중에선 한옥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오신 분이 대부분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고전 물리학자들도 몇 분 정도 오셔서 익선동의 보수와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연구하고 가시기도

한다.

Q. 몇 년 동안 운영(거주)하셨나요?

A. 원래 이 한옥을 10년 전에 매입을 하고 계속 세만 주다가 작년 2013년 4월 처음으로 오픈하였다.

Q. 익선동을 대표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 현재 사라졌다. 지금 이비스호텔이 서 있는 자리에 과거 엄청 유명했던 요정인 오진암이 있었다고 한다. 익선동을 대표하는 장소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Q. 익선동이 어떤 장소와 연관되길 원하십니까?

A. 종묘를 추천한다. 실제로도 숙박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종묘를 추천하고 있다. 보통 서울에 놀러 오면 경복궁이나 창덕궁만 관광하러 오신다. 근데 미국이나 벨기에, 프랑스 분들은 유독 서울 관광 첫 번째로 종묘를 찾으신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것과 이가 보증하는 긴 역사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신기하다고 하셨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종묘의 가치를 잘 모른다.

Q. 익선동의 골목길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통영에 동피랑마을의 벽화거리처럼 어느 정도의 꾸밈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정비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 외국 분들도 명동이나 광화문보다 이 거리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다.

Q. 주민 자치모임이 있습니까?

A. 없는 걸로 안다. 딱히 주민들끼리 모인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Q.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익선동이 지하철 지도에 나오지 않는다. 그냥 종로 1,2,3,4가 동으로 되어 있다. 바뀌달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주변 종로 3가의 상권이나 인사동은 딱히 외국인들이 기억할 만한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종로 7번 출구에서 나와 창덕궁으로 가는 길을 외국인분들께 많이 추천하고 한다. 그곳이 깨끗하고 조용하다. 또 예전 요정문화의 잔재로 한복집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 길을 한복거리라고 부른다. 네이밍이 중요하지 않은가? 익선동 또한 이런 네이밍

을 잘 해야 할 것 같다.

밤이 되면 외부인들의 발길이 잦다. 주위에 노숙자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원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었는데 밤에 자꾸 노숙자분들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분들은 한옥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익선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 그 틀을 깨고 싶다.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인은 외국인들의 익선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이들은 다닥다닥 붙은 한옥과 좁은 골목길에서 한국의 정취를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종묘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종묘의 가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익선동 한옥, 즉 개량된 도시한옥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것은 앞서 인터뷰한 김공박 소장의 견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옥 게스트 하우스 주인은 익선동 한옥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 게스트하우스 주인 인터뷰(2014년 1월 8일)

Q. 보통 어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A. 일본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환율 때문에 많이 줄었다. 또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신다. 서양 분들은 거의 없고 태국, 싱가포르, 대만 같은 아시아 분들이 많이 오신다.

Q. 몇 년 동안 운영(거주)하셧습니까?

A. 여기 살지는 않는다.

Q. 익선동을 대표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 포장마차와 음식점들이다. 가격도 싸고 역사도 오래되었고, 주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한다. 고기 많이 파는 고기골목이랑 칼국수 집이 있는데 특히 칼국수집이 제일 유명하다.

Q. 익선동이 어떤 장소와 연관되길 원하십니까?

A. 인사동이다. 익선동 자체에 대한 인식으로 여길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 지하철이 많고 주위에 궁도 있고 위치적 접근성이 좋아 많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시라 쇼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익선동을 주위 인사동이나 종로의 상권들과 연계하였으면 한다.

Q. 익선동의 골목길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나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이렇게 오래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한옥촌이 어디 있는가? 없다. 익선동이 아마 유일할 것이다. 정이란 게 느껴지지 않는가. 그대로가 좋다. 또 익선동에 사시는 분들이 집 주인이 아니라 거의 세입자라고 한다. 만약 재개발이 되면 이 분들은 나가셔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Q. 주민 자치모임이 있습니까?

A. 없다. 그냥 종로에 숙박 시설업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있다.

Q.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옛날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소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포장마차거리도 그렇고 게이들도 많다. 싸고 맛있으며 전통 있는 음식점도 많다. 분명히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런 특징을 잘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

게스트 하우스 주인도 익선동 골목과 한옥촌의 보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익선동과 인사동과의 연계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분은 상가에 세를 들어서 영업하는 상황이었다.

◆ 게스트하우스 주인 인터뷰(2014년 1월 8일)

Q. 익선동을 대표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근처에 종묘 창덕궁, 골목 내에는 딱히... 집들을 보면 알겠지만 다 똑같은 구조이다.

Q. 익선동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한옥골목이다.

Q. 익선동 주변에 있는 서울의 명소 중 익선동과 어울리며 연결될 수 있는 장소는 무엇입니까?

A. 종묘, 창덕궁 경복궁 등이 있고, 40~50년 전통의 멸치, 해물칼국수 집 두 곳이 있다. 이전에 오진암도 있었는데, 현재는 호텔로 변했다. 종로구가 돈이 부족해 팔아버린 것이다. 오진암(역시 한옥)에 관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다(만석꾼이야기 등).

Q. 주민 자치 모임이 있습니까?

A. 없다. 이전에 주민들을 모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주민들은 보통 세입자들이며 빈집도 많다. 실제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Q. 골목길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북촌 한옥마을처럼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보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을 바람) 예전에 서민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집들의 구조가 똑같다. 익선동은 원래 지어진 한옥 모습 그대로 보존된 마지막 지역이다.

Q. 골목길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한옥들의 개선이 먼저다. (역시 북촌 한옥마을과 비교) 주인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로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한옥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데다가 길이 넓고 좁다. 주인들이 보수 좀 하고 예쁘게 꾸몄으면 하지만 자신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힘들다. 겨울에 춥고 벌레가 생기며 구식이고, 주로 최소 70대~ 80대 노인들이 사는데 집안을 보수해 주어야 한다.

Q. 다른 동네와 다르게 좁은 집이 붙어서 좁은 골목길을 이루는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것은 익선동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A. 실제로 살아보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Q.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집주인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나와 같은 세입자들의 경우는 하지 않길 바란다. 어차피 조합장과 주인들 소수만 이익을 보고 세입자들은 당장 집에서 밖으로 쫓겨나야 한다.

Q. 재건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A. 모르겠다. 힘들 것 같다. 안쪽 골목길과 바깥쪽 골목길 집들의 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깥쪽 길에 사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굳이 안 해도 임대소득이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골목길 안쪽은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데다가 생각보다 지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이 힘들 것 같다.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

진다. 7~8년간 노력해보았으나 재개발이 취소되었지 않느냐. 한옥보존지역으로 결정날 것 같다. 또한 이 지역이 종묘 근처로 고도제한이 있어서 12층 이내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다. 북촌은 주거지역이지만 익선동 이 골목지역은 상업지역이라 아 마 개발이 힘들 것이다.

세탁소 주인은 한옥에 사는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최소한 노인분들이 사는 집 부터라도 불편 사항을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동안 재개발과 한옥에 대한 건축 규제로 답답한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자치모임은 인터뷰 전체 내용에서 별다른 모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과제는 주민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서로 모여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1

익선동 주변지역

국악로(돈화문로)와 낙원동 : 돈화문로가 국악의 거리로 선포된 이후에 국악기점들이 몰려 들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익선동과 그 주위로 국악기점이 다수 영업하고 있으며 국악기점 뿐만 아니라 학원, 연습실 또한 들어서 있다. 실제로 현장조사 때 피맛길 내의 국악기점이나 판소리 연구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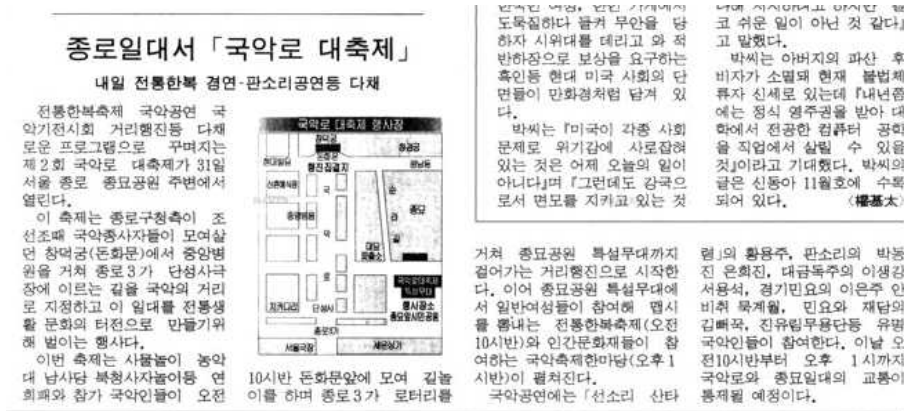


그림 3-22 동아일보 1995년 10월 30일 기사

위 기사는 1995년 10월 30일 동아일보 기사로 제2회 「국악로 대축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종로구는 국악로 축제를 매우 중요한 행사로 여겨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월 20일에 「국악로 대축제 여민락」이 열렸다. 종로구는 전통 예술인과 국악인의 연구실이 밀집돼 있는 국악로를 전통 문화예술의 거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악축제인 여민락

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타대, 궁중복식, 풍물단, 애오개 본산대놀이, 전통무술단 퍼레이드 등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국악로(돈화문로)의 국악기점과는 반대로 낙원동에는 현대식 악기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익선동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낙원 악기상이 인근 낙원오피스텔은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준다.



그림 3-23 국악사



그림 3-24 국악로



그림 3-25 낙원악기상가

탑골공원 : 탑골공원(塔골公園)은 종로2가에 있는 공원으로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다. 탑골공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공원으로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곳에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는데, 이곳은 고려시대 흥복사가 있던 자리로 탑이 생기면서 탑동(塔洞)으로 불리다가 탑동공원(塔洞公園)·파고다공원이 되었다.

익선동과 인접해 위치한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한 종로 3가 일대에서는 수많은 노인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노인들의 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향으로 낙원동과 익선동 일대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노인들은 위한 저렴한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익선동에는 독거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스트 하우스 : 익선동 일대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다수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현장조사 때 게스트 하우스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익선동 일대가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스트 하우스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인사동 : 익선동에서 서쪽으로 위치한 인사동은 낙원동 떡집 골목에서 찾길을 하나 건너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사동은 인사동네거리를 지나 안국동 로터리로부터 종로2가의 탑골공원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과거 골동품상이 밀집되어 있어 전통찻집과 전통음식점이 있던 인사동은 최근에는 외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쇼핑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갤러리, 전통음식점, 카페 등이 많은 이곳에 최근 외국인을 겨냥한 화장품상가, 기념품상가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익선동 주민들의 의견은 과거의 인사동을 그리워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등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이곳을 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인사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동 중심부에는 새로운 예술 시도를 계속하면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쌈지길도 있다.

기타 : 그 외에 종묘, 창덕궁, 운현궁, 덕박물관, 한국미술박물관, 낙원악기상가, 귀금속 상가 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익선동 재개발의 문제

3.1

재개발 발표와 해제 과정

익선동의 165번지 일대는 2004년 4월 29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지구는 166번지 한옥촌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림 3-26 익선지구 재개발 위치도(제공 : 종로구)



그림 3-27 익선지구 재개발 조감도(제공 : 종로구)

종로구에 따르면 익선지구는 동네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도로가 좁아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재개발 지정 이후 근 1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재개발 추진이 답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은 매우 지친 상태이다. 주민들에 의해 조직된 재개발 해제위원회의 노력으로 2014년 1월 4일 익선지구 재개발 승인 취소가 고시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재개발 해제위원회가 당초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로 결성되었는데,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용적률이 450% 이하로 고도제한을 받는 등 재개발에 따른 실익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해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개발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 해제는 주민의 50% 이상이 재개발 해제에 동의하여 신청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데 익선지구의 경우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을 해제한 사례이다.

종로구의 사업개요에 따르면 시행구역은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토지소유자 236명),
시행면적 31,121.5㎡이다. 건축계획(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익선지구 재개발 건축계획(안)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 m)	주용도
26,385	15,831	234,000 이하	60 이하	450 이하	4/14 (50)	공동주택 판매시설

재개발 범위는 익선동 한옥촌과 돈의동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통칭 익선지구 재개발이라고 명칭하였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 29일 : 재개발구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24호)

2005년 6월 16일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2월 20일 :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위원장 최경진에서 안태환으로)

2009년 12월 28일 :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

2010년 10월 6일 : 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2012년 5월 10일 :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50m/14층)하여 재검토 의견 통보

2013년 5월 3일 : 토지등 소유자 실태조사 신청

2013년 10월 현재 :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징구

2014년 1월 4일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3 2 재개발에 관한 입장

2013년 9월 현지조사 때 주민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재개발 문제였다.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재개발사업의 난항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나뉜 상태였으며 매우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자신의 집인데도 보수·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서울시나 종로구청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낙후된 도로시설물 및 기반시설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의견은 인터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찬성 의견

○ 재개발이 진행되어 익선동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바란다.

○ 그러나 아파트 외에 낮은 층수의 건물로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된다면 집을 가진 주민

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지므로 반대하겠다.

② 재개발 반대 의견

- 지금껏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 사업진행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 정부의 지원으로 주변의 전통지역처럼 익선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도로 등의 기본적인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3-28 익선구역지정해제 사무실

- 한옥촌 내에는 익선구역지정해제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익선구역재개발지정해제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는 익선동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가까운 북촌의 한옥이 서울시의 지원과 다양한 활동으로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과 평당 지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동안 익선동의 집주인들이 감내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③ 기타 의견

- 재개발을 너무나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찬성이든 반대가든 어느 쪽으로든 진행되기를 바란다.

IV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을 위한 제안

- 1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의 구상
- 2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의 프로그램 개발

IV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을 위한 제안

1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의 구상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정리하면 에코뮤지엄은 지역,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사이트, 경관, 문화적 당위성, 거류민 등으로 이루어진다.

익선동 한옥지구의 문화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익선동 한옥촌 중심으로 지역이 네트워크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한옥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1과 같이 연구의 틀을 갖고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을 구상하고자 한다.

익선동 한옥지구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의 의식을 일깨우며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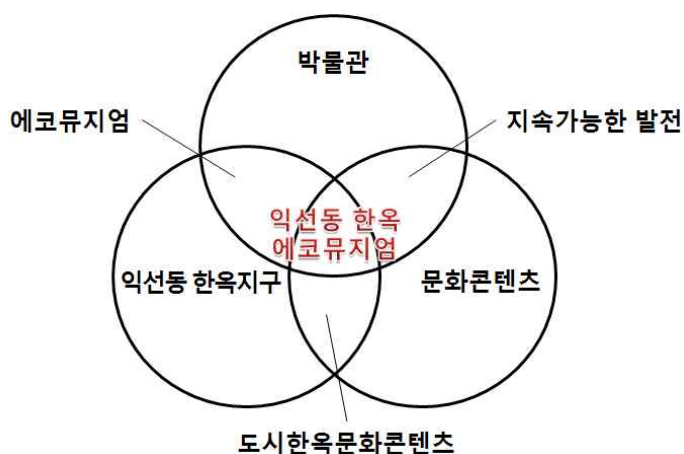


그림 4-1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 구상

2004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익선동에서는 주민이 빠져나가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할 한옥들은 점점 빈집으로 바뀌고 있다. 에코뮤지엄의 구성 요소인 ‘지역’, ‘주민 참여’, ‘박물관 활동’을 통해 본 익선동의 에코뮤지엄 발전 가능성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산업유산, 기억의 수집 등을 현지 보존하려는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예술, 창작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익선동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익선동에는 ‘박물관 활동’이라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익선동 한옥촌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듯이 주민들은 이 지역의 한옥과 골목길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익선동 한옥촌을

중핵박물관으로 규정하고, 그 주변의 주요 유산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위성박물관을 제안하고자 한다.

11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 위성박물관 제안

에코뮤지엄은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개념도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 중앙의 중핵박물관을 중심으로 위성박물관이 발견의 길을 따라 연결되는 구조이다. 주민과 방문객은 발견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익선동 한옥촌 주변의 지역자원은 매우 풍부해 위성박물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창덕궁, 종묘, 귀금속상가, 춘원당한방박물관, 낙원동악기상가, 운현궁, 한국미술박물관, 떡박물관이 있다. 이를 연결하면 큰 7각 도형이 형성된다.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은 이 7각 구역에 형성될 수 있다. 지도에 표시된 부분이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의 각 사이트를 연결한 것이다. 물론 각각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선은 실재 길로 이어지지만 여기서는 직선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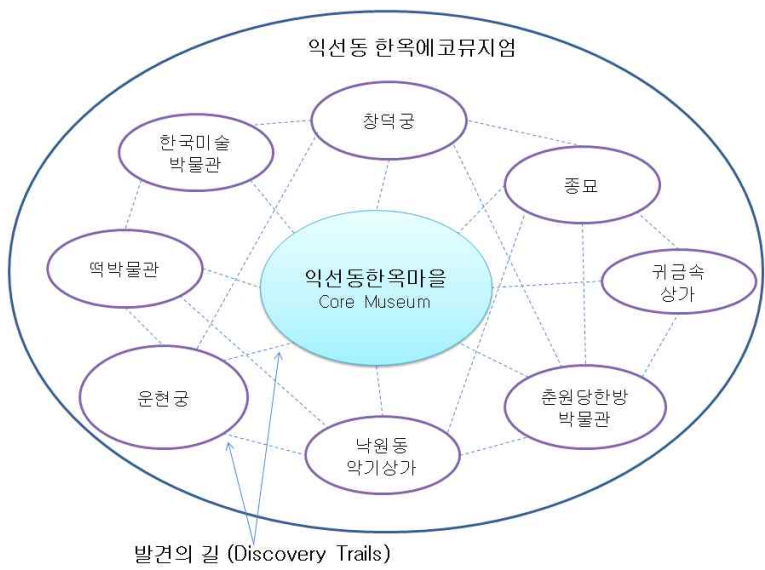


그림 4-2 중핵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을 축으로 한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 구조도

창덕궁, 종묘, 귀금속상가, 춘원당한방박물관, 낙원동악기상가, 운현궁, 한국미술박물관, 떡박물관 등이 모든 위성박물관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에코뮤지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을 찾은 방문객은 이들을 찾기 위해 발견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지역의 다른 자원들도 보게 된다. 또한 길을 찾으면서 지역의 주민들도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며 서로를 알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위성박물관으로 제안할 수 있는 각각의 사이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3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 지도

① 창덕궁

가. 개요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나) 설립연도 및 취지

창덕궁은 1405년(태종5년) 조선왕조의 이궁으로 지은 궁궐이다. 이궁은 나라에 전쟁이나 큰 재난이 일어나 공식 궁궐을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지은 궁궐을 말한다. 창덕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이웃한 창경궁과 더불어 동궐이라 불렀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에 타자 광해군 때에 다시 짓고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정궁 역할을 한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에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이기도 하다.

다) 주요연혁

창덕궁의 연혁은 1392년 조선건국 이후 1405년 조선의 이궁으로 건설되어 1406년 후원을 조성하였고, 1411년 금천교, 1412년 돈화문을 건립하였다. 1468년 세종이 창덕궁 수강궁 증문에서 즉위하였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선조는 피난하여 창덕궁에서 의주로 파천하였다. 당시 경복궁과 창덕궁 등 모든 궁궐이 소실되었다. 이후 1610년 광해군이 창덕궁 증전을 완료하여 법궁으로 삼았다. 1649년 효종, 1659년 현종, 1674년 숙종, 1724년 영조가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하였다. 1776년 정조는 2층 누각을 세워 2층을 주철루, 아래층을 규장각이라고 하였다. 1800년 순조, 1849년 철종, 1863년 고종이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하였다.

1926년에는 마지막 황제 순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순종의 서거에 대해 일제당국은 군중이 모이면 3·1 운동과 같은 대규모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 공식발표를 접한 서울시민들은 그날 밤부터 돈화문 앞에 모여들어 함께 통곡하였다. 전국의 민중들은 왕이 살았던 창덕궁 쪽을 향해 슬피 우는 망곡식을 거행했다. 전국으로 퍼져 나간 이 망곡식에 대해 동아일보는 매일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그림 4-4 초목도 명인하는 이천만중의 호곡성

출처 : 동아일보 5월 1일 기사

「초목도 명인하는 이천만중의 호곡성」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5월 1일 기사는 평안도 안주, 함경북도 경성, 전주, 예산, 황해도 신천, 북계(경원선 북계역) 등 전국의 국민이 애조를 표하

기 위하여 전 시가가 철시하고 창덕궁을 향해 망곡제를 지낸다는 내용이었다. 4월 27일부터 31일까지 망곡식에 참가한 사람만 40만명에 달했다. 이렇듯 창덕궁은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장소이다.

나. 활동상황 및 현황

창덕궁은 1990년대 대규모 복원사업을 거쳐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창덕궁 관람에는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한 가지는 돈화문부터 인정전, 대조전, 낙선재 등 궁궐 지역을 관람하는 일반 관람 코스이고, 다른 하나는 후원 지역만 따로 둘러보는 특별 관람 코스이다.

일반적으로 궁궐이 왕조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질서 정연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것과 달리 창덕궁은 주어진 환경에 맞게 지어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창덕궁은 궁궐을 구성하는 건물과 정원은 물론이고 작은 돌과 나무 한 그루까지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창덕궁에 가 보면 북한산과 태봉산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창덕궁과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창덕궁이 일부러 터를 만들어 건설한 궁궐이 아니라 자연 지형의 연장선상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서면 경복궁이나 창경궁, 경희궁과 달리 정문에서 정전을 볼 수 없다. 건물들이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지 않고, 자연 지형과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제각기 다른 형태로 저마다의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건축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서려 있는 아름다운 궁이다.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창덕궁은 현재 일반 관람 코스와 특별 관람 코스를 통해 기본적인 관람이 가능하며, 청소년 문화학교(궁궐별 역사와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창덕궁 내의원 체험 행사, 옥류천 벼베기 행사, 창덕궁 달빛 기행 등의 행사가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창덕궁은 익선동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한국 조선왕조의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기존의 궁궐과 달리 창덕궁이 지니고 있는 친자연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궁궐 정원을 탐방하고 궁궐에서 조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② 종묘

가. 개요

가)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 157

나) 설립연도 및 취지

종묘는 태조 3년(1394년)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 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현재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정전 뜰 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⁷

조선 왕조는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국가의 도읍지에는 반드시 세 곳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세 곳이란 왕이 머무는 궁궐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종묘,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선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종묘였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조선 왕조의 유교적 전통인 왕실의 제례 문화를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다.

다) 연혁

1394년(태조3년) 종묘기공

1546년(명종원년) 정전 4실 증축

1592년(선조25년) 5월3일 임진왜란으로 정전·영녕전이 모두 병화(兵火)로 소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5월30일 정전 중건(重建)으로 정전은 11실이 됨. 영녕전은 10칸 규모로 다시 세움

1931년 육교가설

1945년 종묘대제(宗廟大祭) 폐지

1961년 일반공개

1971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초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봉행기로 결정함.

1973년 영녕전 16실에 의민황태자(영왕) 부모로 총33위가 됨.

1975년 5월3일 종묘제례가 중요무형문화재 56호로 지정

1985년 4월15일 정전·영녕전 일반공개

1991년 영녕전 16실에 의민황태자비(이방자) 부모로 총34위가 됨.

1995년 12월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1997년 5월2일 세계문화유산 표석 제막

2001년 5월18일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

나. 활동상황 및 현황

종묘제례 및 제례악은 2001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됨으로써, 2008년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관리되고 있다. 종묘제례 및 제례

악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문화유산이다. 종묘제례는 왕조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로 조선왕조의 제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 한다. 고대 중국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소중한 조상전래의 제례의식이다. 조선조에는 춘하추동 사계절과 선달에 행하였으며 1969년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되어 지금은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봉행되고 있다. 종묘대제에는 종묘제례가 봉행되며 각 제사의례에 맞추어 경건한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제례는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 초헌, 아헌, 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送神禮)를 갖춘 후에 축(祝)과 폐(幣)를 망료(望燎)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률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종합예술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 있는 고전음악이다. 종묘제례 당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해설사와 함께하는 일반관람이 가능하다.⁸



그림 4-5 종묘 제례의 모습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종묘는 건물의 위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장엄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모습이다. 정전과 영녕전을 중심으로 모든 건물이 하나같이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웅장하면서도 신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관람객들은 추천 코스를 따라 종묘를 살펴 보면서 한국 전통 왕실의 제례를 체험할 수 있다.

종묘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묘공원에 자리한 하마비를 둘러본 뒤 종묘로 향하는 것이 좋다. 정문인 외대문을 통과한 뒤에는 정전으로 이어지는 신로를 따라 이동하지 말고 오른쪽의 공민왕 신당과 망묘루를 먼저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향대청에서는 제례 의식에 관한 각종 비품과 태실 내부를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 재궁으로 가서 어묵욕청과 어재실과 세

자재실을 둘러보고 정전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사청과 제정, 수복방과 찬막단과 희생대를 보도록 한다.

정전에서는 상월대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동월랑 계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동월랑 계단 위에 올라 정전을 받치고 있는 20개의 기둥과 19개 태실을 감상하는 것이 좋다. 이곳은 정전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림 4-6 정전

정전을 둘러본 뒤 서문을 통해 이동하여 영녕전까지 본 뒤에는 정전과 영녕전의 악공청을 둘러보도록 한다.



그림 4-7 영녕전

기본적인 관람 외에도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위성박물관으로서 종묘는 한국의 전통 음악과 제례 양식 등을 에코뮤지엄 방문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운현궁

가. 개요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10

나) 설립연도 및 취지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운현궁은 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잠저(潛邸)이고 흥선대원군의 사저이며, 한국근대사의 유적 중에서 대원군의 정치활동의 근거지로서 유서 깊은 곳이다. 흥선군 이하응이 왕실집권을 실현시킨 산실이자 집권이후 대원군의 위치에서 왕도정치로의 개혁의지를 단행한 곳이기도 하다. 운현궁은 대원군이 권력에서 하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내외에 행사한 곳으로서 고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살았던 잠저(潛邸)였기 때문에 역사적 상징성이 더욱 크다. 흥선군의 사저가 운현궁으로 불리게 된 것은 1863년 12월 9일 흥선군을 흥선대원군으로, 부인 민씨를 부대부인으로 작호를 주는 교지가 내려진 때부터였다.⁹

다) 연혁

조선시대 일반 상류주택이었던 운현궁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영역이 크게 넓혀지고 건물들도 새로 더 들어서며 흥선대원군이 10여 년간 집정하며 정치를 하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실제로 고종이 살았던 집은 운현궁 동북쪽 뒤에 있었는데, 1966년에 헐리고 그 자리에 중앙문화센터가 세워졌다. 현재의 건물은 대원군이 섭정을 행하던 1863년~1873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노락당과 노안당은 1864년 9월, 이로당은 1870년 준공되었다.

운현궁은 원래 현재의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관(洋館), 일본문화원, 중앙문화센터, 운현초등학교 일대까지 포함된 넓은 지역이었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1940년대 후반에는 대한민청의 본부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1996년 새로 중수하여 개방한 노안당(老安堂), 노락당(老樂堂), 이로당(二老堂)의 세 건물과 부속 행랑채를 운현궁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운현궁 터는 복원하면서 대지를 동서로 크게 양분하여, 동편에는 세 건물들이 들어섰고, 서편은 빈 마당으로 남겨 도로와 접하고 있다. 동편에 있는 세 건물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원군의 사랑채였던 노안당, 안채인 노락당, 그리고 별당인 이로당 순서로 자리잡고 있다. 노안당 남쪽에 원래 아재당(我在堂)이 있었으나 없어졌고, 이로당 북쪽에 있던 영로당(永老堂)도 원래 운현궁의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개인 소유의 건물(김승현 가옥,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9호)로 되어 운현궁 경역과 담으로 구분되어 있다.¹⁰

⁹ 운현궁 공식 홈페이지

¹⁰ 위키백과 참조

나. 활동상황 및 현황

운현궁은 궁궐이 아니었으나 궁궐보다 더 큰 위세를 누렸던 장소이다. 어린 고종을 대신해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집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만했다고 한다. 고종이 즉위 하면서 ‘궁’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곳은 점점 그 규모를 늘려 가는데 담장의 둘레만도 수 리에 달했다고 하며, 고종이 머물던 창덕궁과의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운현궁과 이어지는 흥선대원군의 전용문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 규모와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입구로 들어서면 이 집을 지키던 사람들이 머물던 수직사가 오른쪽에 있고 그곳을 지나면 노안당이다.



그림 4-8 난을 치는 대원군의 모습 재현

노안당은 사랑채로, 대원군이 머물렀던 곳이다. 지금껏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 후기 양반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안당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자를 집자해서 만들었다 하며, 처마를 이중으로 두르고 있는 보침도 이 건물의 볼거리이다. 옆으로 이어지는 노락당은 운현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종이 명성황후 민씨와 가례를 올린 곳이 바로 여기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채로 쓰였던 이로당이 있는데, 대원군의 부인인 민씨가 살림을 하던 곳이다. 밖에서 보면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듯 보이나 계단을 올라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다. 가운데 중정이라는 ‘口’자형의 작은 마당이 마루로 둘러싸여 있는데 안채가 가지는 성격에 따른 폐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로당을 나서면 앞으로 작은 기념관이 있어 흥선대원군이 주장했던 쇄국정책을 알리는 척화비와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식 등을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운현궁은 소정의 요금으로 관람이 가능하며 유물전시관에서 운현궁의 역사, 유산, 유물 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의상 체험, 설날과 한가위 명절행사, 고종·명성황후 가례 재현, 전통 음악, 무용, 연희, 국악, 창극 공연 등의 행사 프로그램이 상시 또는 기획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온돌방이야기(온돌방 실내에서 운현궁에 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전통 예절교실, 왕자·공주 체험교실, 운현 문화 강좌(보자기 만들기 교실, 전통 자수, 한글 서예 교실, 한문 서예 교실, 닥종이 인형 공예 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운현궁에서는 전통혼례가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운현궁은 조선 양반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고종과 명성황후가 혼례를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운현궁에서는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의 전통 혼례를 특히 강조하여 방문객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한국미술박물관

가. 개요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원서동 108-4)

나) 설립연도 및 취지

1993년 7월에 안동권씨 감은사 종중(感恩祠 宗中)의 대표로 있는 권대성(權大城)은 그가 30여 년간 수집한 문화재 중 500점을 출연하여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설립자 권대성 관장은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이천에 정토사(淨土寺)와 서울 평창동에 대정토사(大淨土寺)를 창건할 정도로 불교를 열렬히 신봉(信奉)하였다. 그는 불교 미술품을 수집·보존·연구하기 위해 1970년부터 불교미술품을 수집하였고 이것을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다. 이 미술관은 2011년 1월 한국미술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¹¹ 한국미술박물관은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사회문화교육 보급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의 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다) 연혁¹²

- 1993.5.5 안동권씨 감은사 종중(安東權氏感恩祠宗中)에서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설립 개관 (안동권씨 감은사 대표 권대성 이사장 관장으로 취임)
- 1993.7.21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문화체육부 등록(문화체육부 등록 제55호)
- 1998.6.7~1999.1.24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한국실 개관기념 〈의겸등필수월관음도(義謙等筆水月觀音圖)〉 출품 전시
- 2001.1.1 ~ 2002.4.30 상설전 교체, 박물관 홈페이지(www.buddhistmuseum.co.kr) 오픈

11 위키백과 참조

12 한국미술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참조

- 2002.5.17 ~ 2002.8.30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기념 『제1회 조선불화특별전』 개최
- 2003.1.20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부설 인도티베트불전연구소 개소(소장 권도균 박사)
- 2003.6.20 ~ 2003.11.15 상설 전시실 증축 공사 착공 및 준공
- 2004.5.3 종로구 창신동 130-1 소재 안양암(安養庵)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별관으로 서울시청에 등록
- 2005.1.19 별관 사찰박물관인 안양암을 일반에 무료 공개 시작
- 2005.1.19 ~ 2005.6.15 『안양암에 담긴 중생의 염원과 꿈』 개최
- 2005.2.18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04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상설기획전시 보강 부문 1위로 선정
- 2005.3~2005.11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6차)사업 참여
- 2005.4.8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상설전 및 기획전 분야 우수상 수상
- 2005.4.14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실습 3명, 실무연수와 정 3명)
- 2005.5.15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행사 개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신설
- 2005.9.7~2005.12.24 『티베트 불화 - 삶과 죽음을 넘어서』 개최
- 2006.5.26~2006.9.30 『제2회 티베트 기획전 -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개최
- 2007.6.11~2007.7.31 『북촌에서 만나는 조선가구 특별전』 개최
- 2007.8.21~2007.9.29 『불교의나라 라오스불상 특별전』 개최
- 2008.4.16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협력기관으로 선정
- 2008.6.11 서울시교육청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우리가족 정토여행” 운영
- 2008.8.18~2008.9.28 『미얀마 벽걸이 수(繡)장식 특별전』 개최
- 2009.5.7 서울시교육청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한낮의 박물관 노닐기] “점심시간, 문화를 맛보다” 운영
- 2009.5.2~2009.8.30 『미얀마의 삶 그리고 마음』 개최
- 2010.7.28~2010.9.15 『공존;다문화 이해를 위한 다섯가지 박물관 생각』 연합전 개최
- 2010.12.10~2011 『예술美과 실용用의 만남 금속공예』 특별전 개최
- 2011.1.6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한국미술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서울시청 등록 제27호)

나. 활동 상황 및 현황

한국미술박물관은 불교 미술 문화 전반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불화·불상·조각·공예품 등의 격조 높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미술 수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史料)가 된다. 현재 전시실·수장고·사무실·연구실·자료실 등이 있다. 전시실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이 있다.

전시 유물로는 불상 19점, 불화 20점, 공예 130점, 조각 31점 등 200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 미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유물로 이 가운데 보물 제1204호인 「의겸등필수월관음도(義謙等筆水月觀音圖)」, 보물 제1210호 「청량산괘불탱(淸涼山掛佛幀)」 등이 다른 미술품들과 어우러져 시대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그 중 1998년 6월 7일부터 1999년 1월 24일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으로 전시되었던 「의겸등필수월관음도」는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렸다.

부수 사업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 학술 자료, 유물을 지속적으로 구입·소장·전시하며, 둘째,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셋째, 강연, 세미나, 영상물 상영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넷째, 출판물, 영상 자료 등 참고 자료를 발간하고, 다섯째, 화재 복제품, 완구류 등 미술 상품을 개발하며, 여섯째, 기획전 및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 4-9 한국미술박물관 전경
출처 : 한국미술박물관 홈페이지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한국미술박물관은 명칭이 바뀌긴 하였지만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한국의 전통 불교 미술을 소개하는 장소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상설 및 기획 전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에게 불교 미술에 대한 학습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익선동 에코뮤지엄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에코뮤지엄 풍경 및 지도 그리기 행사 등을 주관할 것을 제안한다.

⑤ 떡박물관

가. 개요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64-2 인산빌딩

나) 설립연도 및 취지

떡박물관은 윤숙자 관장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소장품들을 모아 한국의 옛 부엌살림과 관련한 유물을 위한 박물관으로 2002년 1월에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은 시절, 일생의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떡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조리 도구들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떡을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고 맛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게 하고, 잊혀져가는 식문화를 되살리고자 한다.

다) 연혁

떡박물관은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앞 국악의 거리에 있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소장이 20여 년간 수집해 온 떡 및 부엌살림 관련 유물 2천여 점 중 1천여 점을 상설 전시한다. 학생과 일반시민,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 2002년 1월 19일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은 2007년 서울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할머니의 부엌살림 이야기”라는 특별전시를 개최했으며, 2010년 한일떡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기획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나. 활동상황 및 현황

떡박물관에는 떡살·다식판·약과틀·떡목판·떡가위·맷돌·시루·절구·체 등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준비도구와 조리도구, 모양 내는 기구, 자르는 기구, 담는 기구 등 떡과 관련된 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찐떡·찜떡·지진떡·삶은떡 등 다양한 떡 종류와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개발한 떡들이 실물과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져 소개되고 있다.

2층 부엌박물관에는 전통부엌 재현 모습과 시절음식 및 시절떡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만드는 법에 따라 다양한 떡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 4-10 시절음식과 시절떡



그림 4-11 부엌

3층 입구부터 통과외례 음식차림이 전시되어 있고, 특별 전시관은 시즌별로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그림 4-12 통과의례 상차림 (개성혼례)



그림 4-13 특별전시(아름다운 한국의 떡살)

떡박물관은 그동안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여 10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는 (사)한국전통음식 연구소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떡카페 질시루, 떡연구실 등이 함께 있어 한국 전통음식을 교육·연구·전시·보급하는 전통음식 전문기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떡박물관은 한국의 전통 식문화 중에서도 특히 떡과 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4-14 우리 할머니의 부엌살림 이야기展



그림 4-15 어린이와 함께하는 떡과 차 이야기展



그림 4-16 어린이 대상 떡만들기 체험학습



현재 일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떡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김치만들기, 전통음식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소개하도록 한다.

⑥ 춘원당한방박물관

가. 개요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54

나) 설립연도 및 취지¹³

춘원당한방박물관은 살아 있는 역사, 숨쉬는 전통으로서의 한방에 대한 성찰이 낳은 새로운 개념의 한방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한방전문박물관으로 2008년 개관하여 한방에 관련한 다양한 문화재들을 수집, 보존, 연구 하며 대중에게 한방을 좀 더 친숙하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847년 이래 현재 7대째 한방을 가업으로 이어오면서 남겨진 유물을 토대로 한방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문화재를 공유하여 소중한 한방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다.



그림 4-17 춘원당한방박물관 전경

다) 연혁

- 1792년 한의 윤상신님 정조 16년 평북 박천에서 출생
- 1812년 2대 한의 윤병열님 순조 12년 평북 평양에서 출생
- 1847년(헌종 13년) 윤상신님이 55세에 박천군 청룡면에 의원을 개설하고 환자 진료 시작
- 1898년(고종 35년) 윤기찬님 후대에 유주침법을 전하기 위해 침구요람 저작
- 1928년 윤종흠님 당대의 명의인 김춘성님께 한의학을 전수받기 위해 평양행

13

춘원당한방박물관 공식홈페이지 참조

- 1938년 윤종흠님 의생시험에 합격해 의생면허를 취득하고 평양시 창전리에 춘원당의 상호를 걸고 개업
- 1951년 1.4후퇴 때 윤종흠님과 윤용희님이 남하하여 부산시 부평동에 “평양 춘원당 한의원”을 개원하고 부인병과 소화기질환을 위주로 진료
- 1952년 윤종흠님 제 1회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서울 환도 후 종로구 소격동에 춘원당 한의원 개원
- 1953년 윤종흠님 종로구 돈의동 현위치에 춘원당 한의원 이전개원
- 1963년 윤용희님 경북 안동군 와룡면에 양방의원 개원
- 1965년 윤용희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춘원당한의원 분원 개원
- 1971년 윤종흠님 종로구 낙원동에 한의원을 신축해, 이전개원
- 1973년 윤종흠님 갑상선 질환과 불임을 춘원당한의원 전문 진료과목으로 정함
- 1998년 한의원을 확장해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증설
- 2008년 종로구 낙원동 옛 자리에 신관을 신축해, 춘원당한방박물관과 한약재 품질검사실 신설

나. 활동상황 및 현황

2008년에 개관한 춘원당한방박물관은 춘원당한방병원 맞은편 신관에 자리 잡고 있다. 신관은 한방박물관과 한방의료기관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건물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이 건물은 박물관의 전시실뿐 아니라 박물관 관람동선의 일부로 공개되는 탕전실, 품질검사실 및 문화공간, 그리고 진료실과 치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1층 역사관(문화공간)은 춘원당 연대표와 춘원당을 창업하고 이어온 선대 한의사들의 유품, 건물이나 로고의 변천사 등을 통해 1847년 이래 현재까지 7대째 한의업을 이어오고 있는 춘원당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2층은 진료실, 3층은 탕제실, 조제실로 춘원당에서 자체개발한 약탕기, 전통방식을 그대로 살린 과학적 탕전 시스템, 전산코드를 이용한 배송 등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약조제과정을 3층 모니터를 통해 본 후, 4층에서 약이 달여지는 과정을 내려다 볼 수 있다. 4층은 한약재 품질검사실, 약재저장고이고 첨단기구들로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함유여부실험 등의 약재의 품질검사를 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은, 향습의 시스템 속에 보관되고 있는 약재저장고를 관람할 수 있다. 5층은 한방박물관으로 다양한 재질과 모양의 침통을 비롯하여 각종 약사발, 약탕기, 약보자기, 약장 등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 15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춘원당한방박물관은 한국의 전통 의학을 소개할 수 있는 곳으로 “춘원이의 허준 따라잡기”(초등생 대상, 한의사 인턴이 되어 한방에 대한 이해 및 체험을 도모하는 전문한방프로그램),

“복주머니 향낭 만들기”, “십장생을 찾아서~!”(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십장생의 의미와 건강, 장수,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등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심화 및 발전시켜 방문객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⑦ 귀금속 상가

가. 개요

1) 위치 : 서울 종로구 묘동

2) 설립연도 및 취지

종로 귀금속 상가는 국내 최대의 귀금속 및 보석 도매 집적지로, 이 지역이 급속하게 성장한 시기는 1990년대 초반 무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4-18 묘동과 봉의동 귀금속 상가

3) 연혁¹⁴

종로 귀금속 상가 지역은 조선시대 종로 육의전 주변에 금, 은, 옥 등 귀금속을 취급하는 상점이 모여 있던 곳으로, 90년대 초반 무렵 급속하게 귀금속 상가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종로 귀금속, 보석 산업지구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귀금속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산업적 비중으로 볼 때 전국 귀금속 산업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 기반시설 미비, 주차장 부족, 체계적인 육성 지원 부족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었으나 2009년 8월부터 ‘종로 귀금속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여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종로 귀금속, 보석 산업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귀금속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활동상황 및 현황

14

종로구 홈페이지 참조

귀금속 상가의 업종구조는 주로 귀금속·보석 제조 및 도매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 제조업체는 묘동에 56개, 봉익동에 308개, 도매 업체는 묘동에 166개, 봉익동에 752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이는 묘동 귀금속·보석 산업의 95%, 봉익동 귀금속·보석 산업의 9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현재 묘동과 봉익동의 도매 업소는 약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집적지의 귀금속·보석 제품은 전국 각처의 귀금속·보석 소매업소로 공급된다. 최근 들어서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가가 들어서면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매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종로 귀금속 상가, 특히 묘동 일대는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귀금속 상가를 구경하는 재미는 물론 기념품 구입 및 제작이 가능한 장소가 될 것이다.

⑧ 낙원악기상가

가. 개요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나) 설립연도 및 취지¹⁵

낙원동 악기상가는 1970년부터 악기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문상가로 악기 및 음악에 관한 제품과 정보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곳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피아노, 전자악기, 앰프, 스피커, 노래방기기, 음향장비 등의 양악기와 국악기를 갖춘 종합악기 판매 상가이다.



그림 4-19 낙원악기상가

15

종로구 홈페이지 참조

다) 연혁

낙원상가는 1960년대 당시 보기 드문 주상복합상가 건물로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건물의 1층이 자동차 도로로 사용되는 특이한 설계로 건축되었다. 1979년 탑골공원 담장정비사업으로 피아노 상점들이 낙원상가로 입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악기 전문상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는 종로와 명동, 광화문 일대가 문화의 중심지로서 낙원상가 2층은 음악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모이는 악사 인력시장이 되었고, 4층에는 허리우드극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88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통행금지 해제 등 유흥업의 성황으로 악사 및 악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낙원상가는 호황을 이루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유흥업소 단속으로 악사 인력시장이 위축되었다가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와 노래방 기계의 보급으로 악사 인력시장의 기능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011년 현재 낙원상가의 상징적 공간인 허리우드극장은 사라지고 '젊은 극장'이 있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입구에 50, 60대의 사고장인 '123 콜라텍'과 악기 전문상가들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낙원상가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는 낙원음악영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나. 활동상황 및 현황

낙원상가, 대일상가, 낙원아파트를 통칭하여 낙원상가라고 하며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구 낙원동의 유서 깊은 탑골(파고다)공원 옆 3.1로 40m 광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낙원악기상가는 2층만의 면적이 6,852m(2,072.75평)나 되는 거대한 종합시설로서 270여에 이르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각종악기를 매매 수리하고 있다.



그림 4-20 서울 아트 시네마 외관과 안내표지 및 브로슈어

이 상가는 1층부터 4층까지 총350여 곳의 점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전문상가로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이며 악기라는 단일 품목으로도 유일무이한 곳이다. 낙원상가에는 허리우드 극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허리우드 극장은 없어지고 서울 아트 시네마라는 극장이 들어섰다.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특징적인 것은 노인전용 극장이 있어 노인들의 입장료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일반인이 7,000원인 극장 요금을 5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00원이라는 할인된 금액으로 정해놓았다.

다.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으로서 역할

낙원악기상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시장으로 수많은 악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악기 쇼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객의 악기 구입은 물론 악기 제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서비스할 수도 있다. 또한 2009년에 개최되어 일회성 행사로 끝난 낙원음악영화축제를 되살려 낙원 상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악기 축제 및 익선동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상가 후원의 거리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오랜 시간 동안 종로 지역을 문화재와 역사적 보존의 도심문화지구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종로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의 개발이 아니었으며, 북촌

처럼 상대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발전이 된 곳도 있으나 익선동과 같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심문화지구 개발은 지구별로 특색 있는 방식을 통해 각각의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익선동 한옥촌은 그 자체로 한옥박물관이다. 이곳의 주민이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하나로 이 지역을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의 중핵박물관으로 정해 다양한 지역 발전을 시도할 수 있다.

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일본 1호 에코뮤지엄인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은 처음 에코뮤지엄 마을 만들기 계획을 세운 후 에코뮤지엄이 탄생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젊은이가 떠나고 경제활동이 쇠퇴하고 있는 산간 마을에서 지역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선진국의 사례를 탐방하면서 수많은 심포지엄과 연구회, 견학회, 토론회 등이 열리는 등 다각도의 모색을 바탕으로 NPO법인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협회가 발족한 것이 이 에코뮤지엄의 시발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익선동 한옥촌에서는 노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친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을 축제, 골목 장기대회, 피맛골 경로잔치, 예술가와 주민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가꾸는 일에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할 것이다.

② 예술가, 전문가의 영입

익선동에 관심과 애착을 갖는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지역에 맞게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최근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있어 이들의 지혜와 활동역량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역시 지역의 핵심역량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역의 현안을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이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들과 중핵박물관인 한옥촌을 테마로 한 전시회, 축제,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진정한 에코뮤지엄으로서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③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

현재 익선동 주민은 노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의 힘으로 지역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에코뮤지엄의 성립에 전적으로 행정당국에게 기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긴 세월 재개발에 묶여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보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13 ④ 상가를 중심으로 한 에코뮤지엄 활동 전개

일본의 히라노에코뮤지엄은 마을의 오래된 역사가 헐리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임을 결성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오래된 자원을 수집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 9월, 지하철 타니초선의 개통에 따라 구전철선이 폐지되고, 역사(驛舎)인 남해평야역사건물이 철거될 것을 막기 위하여 일어난 재생운동이 그 시발점이다. ‘히라노의 중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이를 계기로 ‘히라노초 만들기를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결국 역사는 철거되었지만 모임은 지속되어 역사적 경관을 지키는 ‘경관협약 운동’, ‘마을 한 바퀴 투어’ 등이 시행됐다. 상인들은 지역의 지도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휴일에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박물관 활동을 전개하는 운동을 펼쳤다.¹⁶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스스로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 익선동 한옥 에코뮤지엄의 프로그램 개발

- 아래와 같은 에코뮤지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주민을 위한 노인잔치 : 피맛골 식당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요일에 규칙적으로 노인잔치를 진행한다.
- 마을 어르신 사진 찍어 드리기 : 지역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 준다.
- 익선동 보물찾기 말하기 대회 : 익선동에 거주하면서 ‘이것이 마을의 보물이다’고 느낀 점을 말하고 서로 동감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한다.
- 익선동 탐방 프로그램 : 주민과 함께 지역을 찾은 관람객이 마을 골목을 탐방하고 주변의 지역을 걸으면서 지역을 발견한다.
- 익선동 추억 말하기 대회 : 과거 익선동에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익선동에 어려웠던 추억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지나간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한다.
- 전시회 : 시집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익선동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의 오래된 살림살이전을

16 배은석, 2013, 『문화유산경영 문화콘텐츠 기획, 에코뮤지엄 : 지속가능한 농촌희망 프로젝트』, 북코리아, 108쪽.

개최한다.

- 그 외에도 익선동 사진전 등 다양한 자원 발굴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 익선동 에코뮤지엄 앱을 개발하여 중핵박물관은 물론이고 위성박물관을 찾는 방법, 개장 시간, 요금, 근처 식당, 숙소, 현재 진행되는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QR코드를 이용한 지역 안내를 할 수 있다. 이는 익선동 에코뮤지엄 브로슈어나 지역의 벽면을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V 결론

V 결론

익선동은 대한민국 근대 역사를 품고 있다. 문화통치에 반발한 조선물산장려회의 독립운동 활동이 이뤄지는 근간이 되었던 곳이다. 또한 분노 투척 사건 등의 해프닝과 7.4 남북공동성명과 연관되기도 하며 대한민국 근대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다.

그리고 익선동엔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 젊은 예술인들이 익선동의 역사에 영감을 얻으며 이곳을 젊음과 예술의 미래가 있는 곳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예술 활동은 감성과 예술에 대한 배움으로 이어져 감성과 배움의 미래를 형성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뤄진다면 세대 간의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는 소통의 미래의 장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익선동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역사와 우리가 알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재탄생시킨다면 익선동은 역사문화의 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면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시한옥과 지역사회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의 촉구이다.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기업으로 말하면 감가상각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¹⁷ 이 연구의 대상이 에코뮤지엄의 구성 요소인 지역유산에 대한 고찰에서 이루어진 것과 지역의 유산과 지역문화시설인 박물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채택한 것은 기존의 박물관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도시한옥지구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발현과 자아 정체성 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이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지역의 유산에 대해 학습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웃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이 도출되는 것이다.

셋째는 도시한옥지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한국형 에코뮤지엄의 제시와 적용 가능성 모색이다. 한옥문화콘텐츠를 전승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의 모델

17

최종호, 2010, 「박물관학의 이해와 앞서가는 뮤지엄」, 『제11기 초·중등 교원 박물관 문화연수』, 경기도 박물관, 21~34쪽.

은 주민들의 힘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선언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에코뮤지엄의 한국형 모델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은 향후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 전(展)’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아직까지 주민의 의식이나 참여가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지만, 이곳에 지역을 사랑하는 예술가들과 뜻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므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시를 펼침으로써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을 떠난 이주민, 대중에게 익선동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익선동 한옥 가운데 유서 깊은 한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등록문화재제도는 기존 문화재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정문화재와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이끌어 내므로 경제적인 제한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외관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를 허용하고,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유한다. 아울러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물론이고 수리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등록 기준은 근대사를 기념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 등이다.

셋째, 익선동 한옥에코뮤지엄의 시현을 위한 주민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 번 훼손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귀중한 한옥자산이 익선동 한옥촌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에코뮤지엄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의 보존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경민·박재민, 2013, 『리쌍킹 서울』, 서해문집
- 민현석, 2010, 『2010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까지 정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배은석, 2013, 『문화유산경영 문화콘텐츠기획, 에코뮤지엄 :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북코리아
- 백관수, 1929, 『경성편람』, 흥문사
- 최병식, 2010, 『뉴 뮤지엄의 탄생』, 동문선
- 최종호 외 공저, 2010, 『한국박물관교육학』, 한국박물관교육학회편, 문음사

2. 논문

- 강성원·강명수·정봉거·김기호, 2006, “역사환경으로서의 도시조직 변화연구 : 종로구 익선동도시환경정비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발표자료』, 한국도시설계학회
- 박희용, 2008, “창덕궁 정전 영역의 구성과 운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배은석, 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 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인호, 1988, 「도시형 전통주거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가회동 개량한옥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
- 윤민경, 1991, “서울시 1930년 전후의 가로와 한옥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권농동, 봉익동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송이, 2011, “종묘제례악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전종한, 2009,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제 44권 제6호 통권 135호, 대한지리학회

3. 번역서

- 오하라 가즈오키, 2008,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김현정 옮김, 아르케

4. 외국문헌

- Janet Marstine, 2011, *New Museum Theory and Practice*, Australia : Blackwell
- Peter Davis, 2011, *Ecomuseums A SENSE OF PLACE*, Continuum

5. 인터넷 사이트

- | | |
|---|--------|
| http://www.enakwon.com | 낙원악기상가 |
| http://www.unhyeongung.or.kr | 운현궁 |
| http://www.jongno.go.kr | 종로구청 |
| http://www.jm.cha.go.kr | 종묘 |
| http://www.tkmuseum.or.kr | 떡박물관 |

<http://www.cwdmuseum.com>
<http://www.moel.go.kr/>
<http://www.kartm.co.kr>

통계청
춘원당한방박물관
한국미술박물관

서울연 2013-PR-56

익선동 한옥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구상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2월 2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